

제20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포커스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화

북한의 축산

북한농업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0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전형진 hjchon@krei.re.kr 061-820-2020
임채환 herolch@krei.re.kr 061-820-2038

제20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포커스

-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화 3
- 북한의 축산 7

2. 북한농업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15
- 국내매체 보도 동향 54

3.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73
-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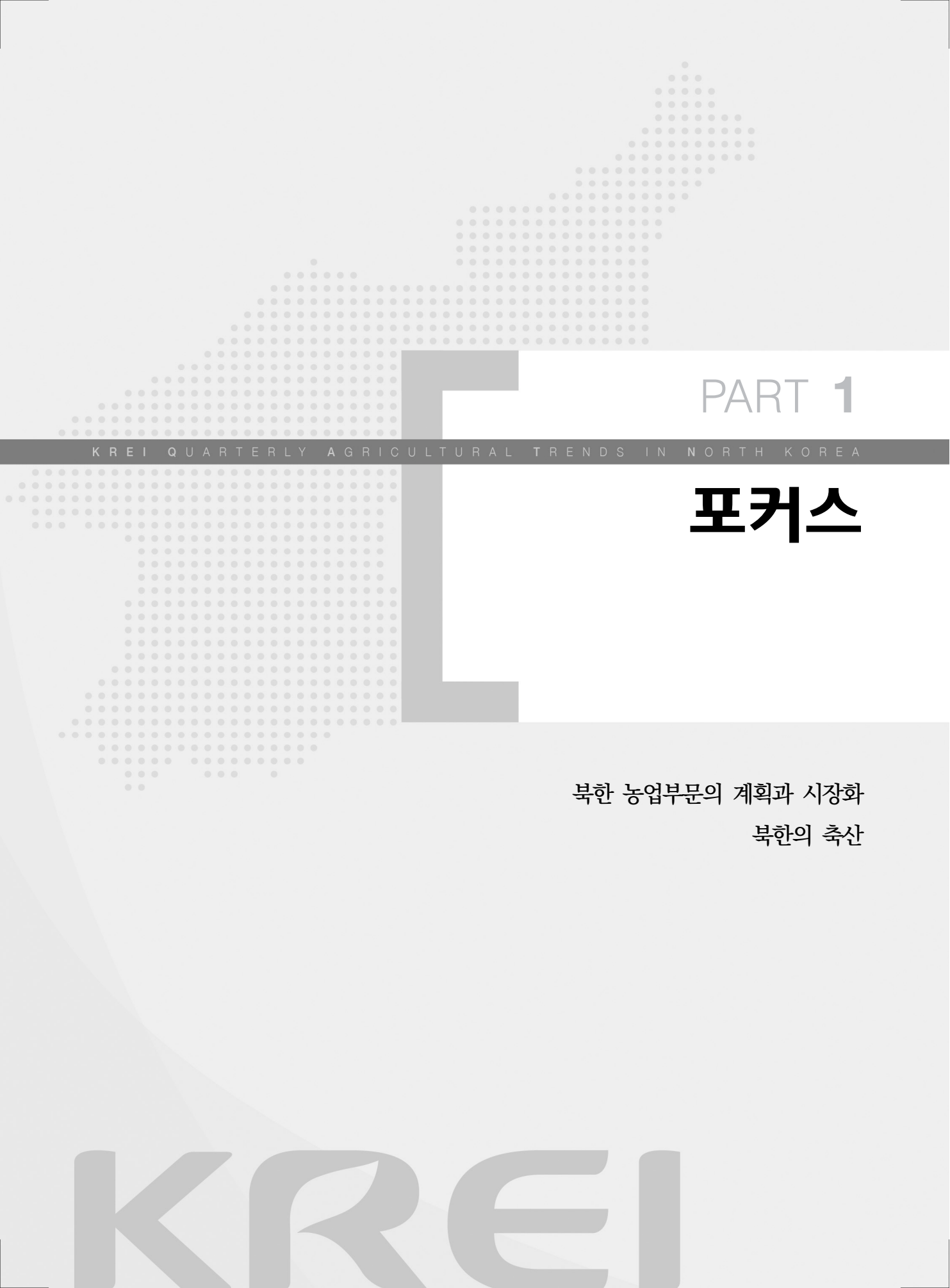
4.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85
-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 ... 92

5. 부록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103

2018년 4월 이후 중국 해관은 국가별·품목별 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호의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PART 1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포커스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화
북한의 축산

KREI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화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김 영 훈¹⁾

□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 : 철저한 계획관리

- 농업의 연간 관리·운영 체계는 다음 순서로 구성되었음.
 - 계획수립 ⇨ 계획실행(자재조달·생산활동) ⇨ 수확평가 ⇨ 생산물 처분·분배
 - 생산물의 국가 구매는 계획처분, 농장 예비와 구성원 분배는 자율처분에 해당
- 농업의 관리와 운영에서 국가와 협동농장이 엄격하게 역할을 분담함.
 - 국가기관은 계획수립, 농자재조달, 수확평가, 계획 내 처분(구매)을 수행
 - 협동농장은 생산 활동과 계획 외 처분(농장 내 분배)을 수행
- 농산물·농자재·서비스의 생산과 교환은 대부분 국가의 계획 내에서 이루어짐.
 - 농민은 농장에서 집단적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국가가 분배와 복지를 보장
 - 농민은 극히 일부 활동만 텃밭과 부업에 참여해 그 생산물을 장마당(10일장)에서 사적으로 교환

□ 1990년대 경제위기 기간 : 계획관리체계의 혼란

- 경제위기·농업위기·식량난으로 농업의 계획관리가 불가능해짐.
 - 사회주의 경제블럭 해체 ⇨ 우호무역 중단 ⇨ 산업 위축 ⇨ 농자재 국가조달 중단 ⇨ 농업생산 급감 ⇨ 식량난 ⇨ 산업 마비 ⇨ 경제난 (악순환)
 - 1980년대부터 누적되어 오던 경제침체 문제가 김일성 사후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의 계획과 무관하게 농자재 조달과 농산물 생산이 성행하기 시작함.
 - 농장은 농자재기업소와 직거래 교환, 농민은 소토지를 개간해 농산물 생산
 - 국가 조달·배급 경로 외에 유무형의 새로운 유통경로와 시장이 형성

□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식' 이후 : 계획과 시장의 공존

- 국가공급 축소로 농업관리에서 국가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계획수립'과 '생산물 처분' 단계에서 사회주의 농업관리체계는 강고하게 유지됨.
 - 국가의 계획수립, 최소한의 국가 농자제조달, 국가의 계획수매 유지
 - 국가 계획수매 농산물의 용처: 인민군대 보급용, 예산제 국가기관 배급용
- 약화된 국가 기능의 공백을 농장과 농민의 시장 활동으로 대체함.
 - 농장의 시장 활동 : 농자재를 생산하는 공장기업소와 직거래, 도매상에게 농축산물을 판매
 - 농민의 시장 활동 : 시장에 농산물 판매, 시장에서 농자재 구입
 - * 농장과 농민의 시장 활동에는 적법, 편법, 탈법이 혼재
 - *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공식 인정된 시장이 그 이후 '종합시장'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2017년 400여 개소로 증가
- 2012년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 방침'에서 협동농장에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함.
 -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농업관리 방침
 - 생산·교환·분배 등 농장 내 의사결정권한이 부분적으로 '관리위원장 ⇨ 작업반장 ⇨ 분조장 ⇨ 농민'으로 하향 이전
 - 농민 개인에게 포전담당책임제 시행(공식), 개인의 소토지 부업농사 정착(비공식)
- 2014년 회령 A협동농장 사례로 본 농업부문 계획과 시장화 실태
 - 곡물생산량은 국가납부(62%), 농장 상환·예비(23%), 농민분배(15%)로 배분
 - 공식적으로 시장화 물량은 '농장의 상환·예비몫(생산량의 23%)'에서만 발생 가능
 - 이외에 비공식적인 시장화 물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

표 1 협동농장의 농산물 처분 사례(회령 A협동농장 B작업반, 2014년)

국가계획	실제생산	생산물 처분	처분 순위
벼·옥수수 면적 54정보 생산 196톤 (단수 3.6톤)	150톤 (단수 2.8톤)	군량미 납부 20톤	1
		기관기업소 공급 70톤	2
		농장 상환·예비 34톤	3
		인민군대 지원 2.5톤	4
		농민 분배 23.5톤	5

자료: 김소영(2017)에서 재정리

□ 북한의 농업개혁과 제약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이 추구했던 농업개혁의 요체는 인센티브 강화와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대였음.
 - 2012년에 도입된 '포전담당책임제'도 농민 개개인에게 추가적인 생산 인센티브를 부여
 - 농장 내 포전담당조(組)와 개인에게 일부 경영과 관리 권한을 더 부여
- 계속된 농업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생산, 특히 식량의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2년간 오히려 감소함.
 - 이는 북한의 농업개혁 추진에 간과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며, 포전담당책임제 개혁조치의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시사²⁾
 - 또한 이 사실은 향후 북한의 농업생산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음.
- 이 결과는 북한 농업개혁조치의 한계에 의한 것임.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혁조치가 생산 현장에서 적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 식량의 절대 부족 현상 지속 : 인센티브 개혁에 의한 농민 추가 분배분을 다시 내놓도록 사회적 압력을 부가함으로써, 동기유발 개혁 자체가 무력화³⁾

2) 2013년과 2014년 북한의 정곡 기근 식량 생산이 연간 480만 톤 수준이었는데(농촌진흥청, 2014. 12), 2016년과 2017년의 생산량도 연간 480만 톤 수준 이하에 머물렀으며(농촌진흥청, 2017. 12), 2018년에는 455만 톤 수준으로 더욱 감소하였음(농촌진흥청, 2018. 12).

3) "확대재생산용 알곡과 농장원 분배 알곡 중 여유 알곡은 당의 '양곡전매제방침'과 농장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에 의한 알곡현물분배 지도서, 2013). 북한은 식량배급제 도에서 '기준식량소비수준'을 정해놓고 있음. 그것은 1인당 연간 260kg 혹은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곡물을 조달한다는 '목표'의 개념임. 그 기준을 지킨다면 북한은 연간 약 650만 톤의 곡물이 필요함.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을 책임져야 하는 북한 양정당국 입장에서는, 배급식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농민들에게 인센티브 몫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강행하기 어려울 것임. 실제로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 중 일부만 생산농민에게 지급되고 있음. 또한 기준식량 소비수준(260kg) 이상에 해당되는 농민 배분몫에 대해서는, '양곡전매(專賣)방침'에 따라 '여유 알곡'

- 자본재 공급 부족 현상 지속 :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신규투자 미흡과 필수 농자재의 공급 부족에 따른 저생산성 지속

(참고)

표 2 북한의 집단농장

구 분	협동농장	국영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
기 능	식량, 농축산물 생산	종자, 종축, 축산물, 특수작물 생산	식량 및 농산물 생산 특수작목 대규모 생산
종 류	-	채종장, 종축장, 원종장 전문농장(과일, 담배, 양묘) 축산농장(가금, 돼지, 염소)	일반 농산 종합농장 특수종합농장
관 리	공유에 기반하여 협동경영	국유에 기반하여 국영 및 도영으로 운영	국유에 기반하여 국영 및 도영으로 운영
소득분배	배분과 국가수매	임금지불과 국가수매	임금지불과 국가수매

자료: 김영훈·남민지(2011)

표 3 북한의 농업지도기관·관련기관·기업소·농장의 관계 개념도



자료: 김영훈·남민지(2011)

혹은 '미소비 알곡'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분배분을 다시 정부수매(收買)에 응하도록 농민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

북한의 축산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김영훈⁴⁾·김현중⁵⁾·임채환⁶⁾

□ 북한의 축산업 : 경제위기 이전

○ 북한의 축산업은 다음으로 구성

- 주체에 따라 국영축산, 협동농장 공동축산, 개인 부업축산으로 구성
- 업종에 따라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처리가공업 등으로 구성
 - * 북한에서 소는 역우로만 활용되므로 몇몇 특수한 젖소목장 외에 소목장은 없음.

○ 북한 축산의 연결망

- '종축장 ⇨ 1차사육장 ⇨ 2차사육장 ⇨ 처리가공단위'로 연계·공급
- 종축장은 원종보호, 종축 검정·관리, 인공수정, 품종 육성·개량, 종축공급 담당
- 지방의 농업을 활용한 '가축먹이기지'와 '배합먹이공장'을 건립하여 연계

○ 경제위기 이전에는 국영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개인의 부업축산은 자급기능만 담당

- 국영 축산단위는 규모·업종에 따라 축산기지, 목장, 종축장, 축종별 사육공장, 육류가공공장, 부산물처리공장 등으로 전문화

□ 북한의 축산업 변화 : 경제위기 이후

○ 1990년대 경제위기로 북한의 집단축산(국영 및 협동농장)은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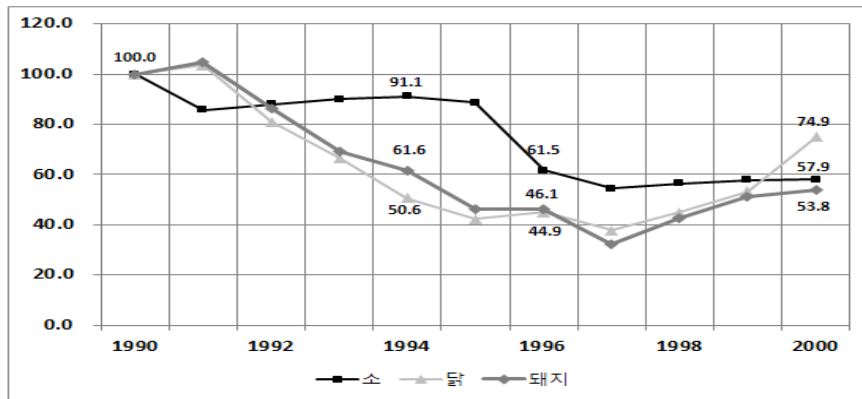
- 집단축산의 일시 붕괴, 1997년 돼지와 닭 사육수는 40% 이하로 감축
- 북한의 축산이 개인 부업축산, 협동농장 공동축산, 국영축산 순으로 재편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그림 1 | 경제위기 전후 주요 축종별 사육두수 지수 변화(1990=100)



자료: FAOSTAT 재정리

○ 최근 북한의 축산정책 강조

- 농촌에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한 축으로 축산발전 강조
- 축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세포지구축산기지' 건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2017년 완공
- 2019 신년사에서 '축산업 발전의 4대고리를 틀어쥐고... 축산기지의 현대화와 활성화, 협동농장 공동축산과 개인 부업축산을 장려'할 것임을 천명
 - * 고리형순환체계: '가축 사육 ⇨ 퇴비 생산 ⇨ 알곡 생산, 환경 보호'의 선순환 체계
 - * 축산발전 4대고리: 우량종자 확보, 먹이 문제 해결, 사양관리 개선, 철저한 수의방역 대책 확립

○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축종의 사육두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음

- 곡물사료가 필요한 축종은 사육두수 정체 및 감소, 초식 가금·가축은 증가

표 1 | 북한의 주요 가축 사육두수 동향(2000-2016)

단위: 천 두·수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소	579	570	577	576	575	571	567
닭	15,733	19,000	16,569	15,309	14,500	14,500	15,000
오리	2,078	5,300	5,936	6,012	6,000	6,072	6,069
돼지	3,120	3,260	2,248	2,265	2,100	1,969	2,034
토끼	11,475	19,800	28,571	31,480	32,500	33,492	35,946

자료: FAOSTAT 재정리

○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2개소의 축산단위를 파악

- 파악된 축산단위는 함북(22개소), 황북(19개소), 평양(16개소) 순으로 분포

* 최근 북한 당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축산단위는 세포지구축산기지, 신의주닭공장, 강계돼지공장, 광포오리공장 등임.

표 2 북한의 지역별·축종별 축산기지 분포

	평양	강원	랑강	자강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남	황북	소계
닭	5	-	-	4	4	3	1	3	1	5	26
소	1	3	1	1	-	3	1	8	-	1	19
오리	3	-	-	3	2	3	2	4	-	1	18
돼지	3	1	-	2	3	2	1	4	-	1	17
포유 기타	-	1	-	-	1	-	3	1	-	7	13
총축	-	1	1	-	-	-	3	2	-	2	9
가공업	3	2	-	-	-	-	1	-	-	1	7
기타 가금	1	-	-	-	-	-	-	-	1	1	3
소계	16	8	2	10	10	11	12	22	2	19	112

자료: 광명백과사전, 로동신문, 이석기 외(2014), 북한정보포털, 조선향토대백과를 활용하여 재정리

(참고)

세포지구 축산기지

□ 조성 개요

- 조성 목적

• 축산업 육성 및 축산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축산기지 건설

- 조성 배경

• 북한 중산층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대

• 축산물 공급을 통해 주민의 영양부족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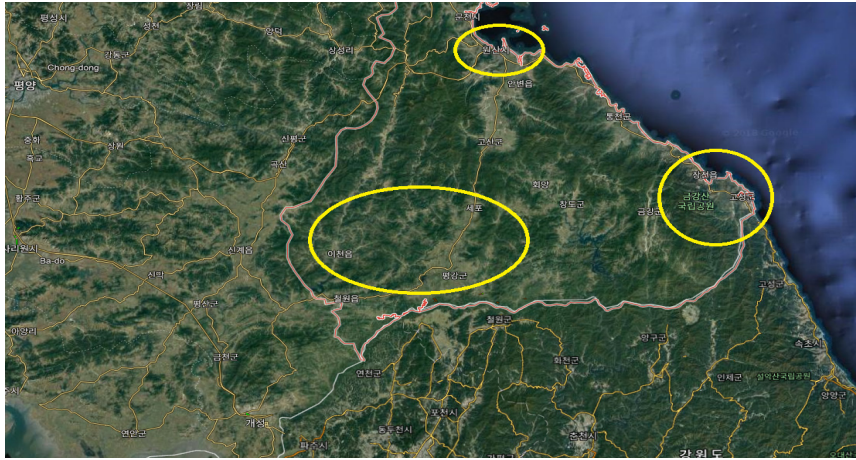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유기질 비료 공급

- 위치: 강원도 평강군, 이천군, 세포군

• 원산에서 80km(도로), 군사분계선까지 12km, 서울까지 약 40km(직선거리)

• 산맥으로 둘러싸인 600m 내외의 고지대

그림 2 세포등판지구 축산기지 위치



자료: Google 지도

- 규모: 50,000ha(1억 5,000만 평)로 세계 최대 규모
 -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삼양 대관령목장(2,000ha)의 25배
 - 뉴질랜드의 마운트 펄버 스테이션(MT, Pember Station) 28,000ha의 약 2배
- 조성 기간
 -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년

□ 축산기지 구성

- 축산 관련 시설
 - 축사 및 운동장, 축종별(소, 염소, 양 등) 종축장, 육가공 및 유가공시설, 인공수정초소, 사료가공공장 등
 - 종합적인 관리시설 및 연구소: 종합생산통제실, 축산연구소, 수의방역소, 농업과학기술 선전실, 수의실, 검역우리, 격리우리 등
- 대규모 초지: 10,000ha(3,000만 평)
 - 재배 작물: 옥수수, 콩, 토끼풀, 알팔파, 호밀, 콩조아재비, 리도카나리아달풀 등
- 부속 시설: 살림집, 학교, 유치원, 탁아소, 상점, 진료소, 문화회관 외 후생시설
- 기타: 바람막이 숲(600ha, 180만 평), 풀판보호림(12,600ha, 3,780만 평), 방목도로 (2,000km), 배수로(360km), 저수지(10여 개) 등

□ 축산기지 운영 계획

- 가축 사육 계획
 - 소, 양, 염소 등 10만 마리 이상 방목 사육 및 돼지, 닭, 오리 등 중소 가축의 대규모 사육
- 축산물 생산 계획
 - 육류: 2017년 5,000톤 → 2020년 10,000톤 목표 및 육가공품 및 유제품 생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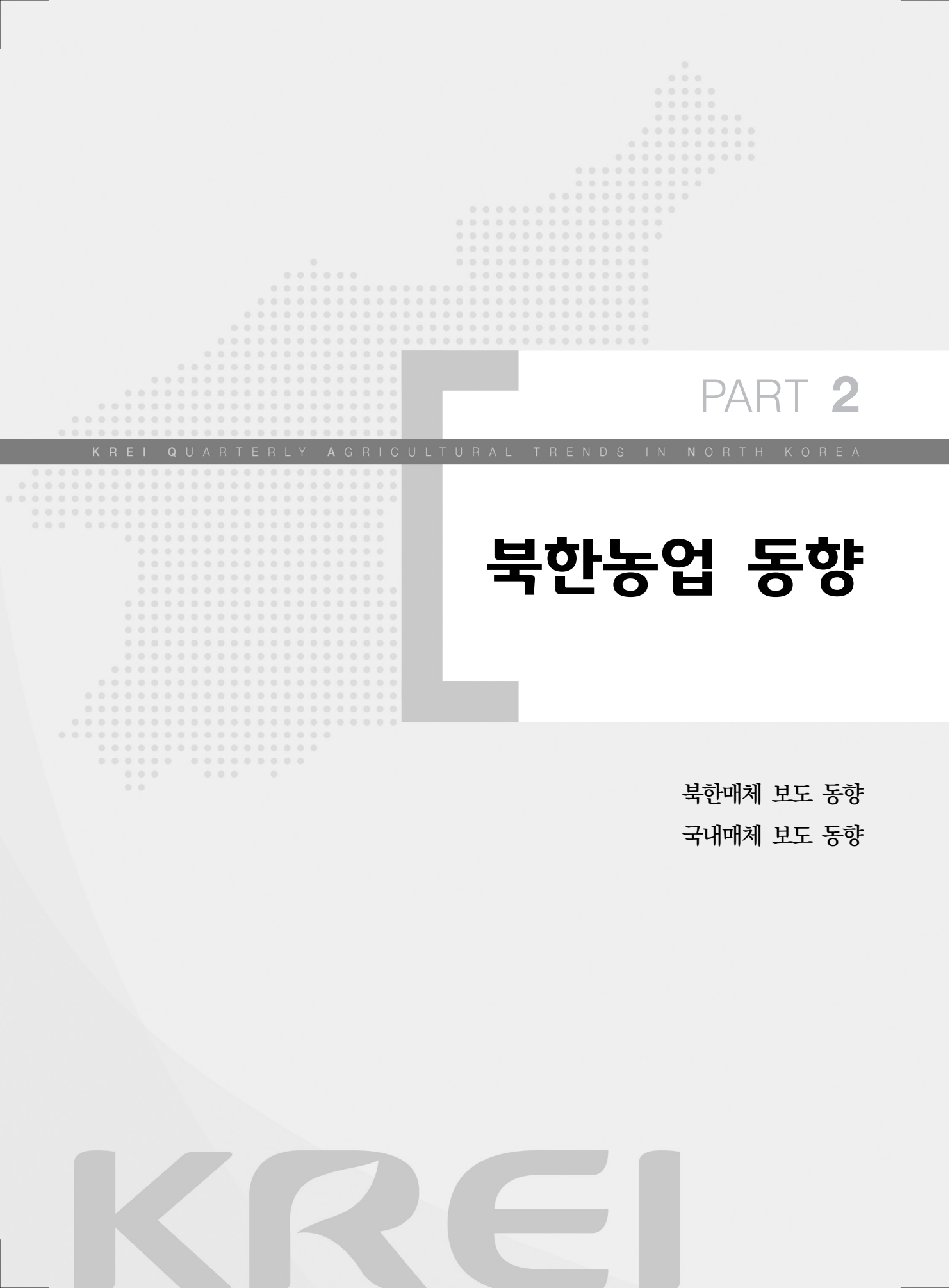
□ 세포등판지구 축산기지의 평가와 전망

-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⁷⁾
 - 세포, 이천, 평강군 별로 축산기지와 관련된 새 건물과 주택이 들어서고, 현대식 축산시설도 확인 그러나 가축두수가 많지 않으며, 축산시설 및 관련 시설 부족
 - 전력 공급 문제 해결 필요
-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세포등판지구 축산기지 사업 성공 불투명
 - 2003년 청암구역 염소목장 건설 사업 폐기 사례
 - 2000년대 전국적 범위에서 돼지 및 염소 목장을 건설했지만 대부분 실패
 - 옥수수 등 곡물 배합사료 공급 부족
 - 여름철 위생관리 취약으로 질병에 의한 가축의 집단 폐사 사례
- 초지 조성 및 관리 미흡, 우량가축 공급 부족, 방역기술의 후진성 등을 극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축산신문 2018.07.04.)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화 및 북한의 축산 참고자료)

김소영, 2017.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영훈·남민지, 2011. 북한의 농업법제 고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2018. 12. 14. '북한, 올해 곡물 455만 톤 생산'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북한의 식량작물 작황 보도자료, 2014, 2017.
 로동신문, 2014~2018년
 북한정보포털, <nkinfo.unikorea.go.kr/>
 백과사전출판사, 2009. 광명백과사전
 이석기·김창모·빙현지·이승엽, 2014. 북한의 기업 -제조업 및 에너지기업 편람. 산업연구원
 축산신문 2018.07.04.
 평화문제연구소, 2006. 조선향토대백과
 FAOSTAT. <<http://www.fao.org/faostat/en/#data>>
 Google 지도 <<https://www.google.com/maps/>>

7)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



PART 2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북한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농업정책

◆ 김정은의 현지지도 및 북한 주요 간부의 현지이해

박봉주의 평안남도 농장 현지료해(로동신문 2018.10.11.)

- 박봉주는 문덕군 룡립협동농장과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광천농장을 현지 방문하였음.
 - 박봉주는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농장원들을 찾아 격려하였었으며 다수확자, 다수확분조, 다수확작업반대열을 늘리는 것과 함께 농사일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강조함.
 -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광천농장을 돌아보면서 박봉주는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지역별, 품종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단위들에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됨.

박봉주의 만경대닭공장과 평양버섯공장 현지료해(로동신문 2018.10.26.)

- 박봉주는 만경대닭공장과 평양버섯송장을 현지 방문함.
 - 박봉주는 닭공장 내 생산조직과 닭알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과 사료공급체계의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또한, 생산 공정 현대화를 다그치며 버섯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꾼들과 종업원들 관련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함.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실현에 집중하며 관련부문들에서 여러 문제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음.

김정은의 삼지연군 현지도(로동신문 2018.10.30.)

○ 김정은은 삼지연군을 현지 방문함.

- 김정은은 삼지연군 읍지구건설현장을 찾아 읍지구에 새로 지어진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고 공공 및 산업건물,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올해 계획된 건물들도 확인함.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삼지연군건설실태와 자재, 노력보장실태, 물자수송상태를 확인하고 공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보고받음.
- 김정은은 삼지연군안의 모든 대상건설을 3단계로 나누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 안에 끝내는 계획을 제시함. 또한, 2020년까지 삼지연군건설을 완공을 위해 공정별, 순차별, 단계별, 년차별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진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건설감독부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지도를 확인하여 책임성과 역할을 강조함.
- 또한 들쭉단목과 단물, 들쭉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들쭉음료와 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삼지연들쭉음료공장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연말까지는 완공할 것을 지시함.

○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다시 현지 방문함.

- 감자저장고를 확인하고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룬 것에 대해 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함.
- 김정은은 감자저장고의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함량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자동조종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열, 통풍, 습도를 보장할 수 있는 가습장치, 컨베이어 설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감자입고와 보관, 저장고 관리를 과학적으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할 것을 강조함.
- 삼지연군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학농법을 연구 도입하여 앞으로 감자농사에서 더욱 높은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토지개량사업과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밖에도,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우량품종의 종자를 육종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함.

- 감자가루의 우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감자가루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널리 소개하여 식생활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함.

김정은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현지도(로동신문 2018.11.1.)

○ 김정은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현장을 재방문함.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거리전경을 돌아보고 공사 진행 실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함.

- 건물높낮이배합과 건축구성의 다양한 형태 및 크기변화 등을 보완하고 해안지대에 접근 배치하여 고층종합청사형식으로 건설하라고 지시함.
 - 해안관광지구안에 종합주차장도 크게 건설하며 갈마역을 개건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대중교통수단을 해결방법 강구를 지시함. 또한, 공사장의 질서유지, 주변정리, 노동안전대책, 각종 사고방지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지시함.
- 원림녹화사업을 건설사업을 강조하면서 원림설계를 해안거리특성에 맞게 특색 있게 잘하고 원림조성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함.

◆ 농업관련 로동신문 사설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로동신문 2018.10.01.)¹⁾

- 감자농사혁명방침은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노선임.
- 감자는 추위를 잘 견뎌내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성이 매우 높은 다수확작물임.
 - 지방별로 기후와 토양조건이 서로 다르며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감자와 같은 작물을 대대적으로 심는 것임. 감자농사를 잘하면 식량문제와 고기문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감자농사혁명방침을 통해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감자적지에서 감자밭면적을 크게 늘리고 별방지대에서도 감자를 심으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감자농사혁명방침이야말로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고 나라의 농업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침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
 - 지대적 특성에 맞게 감자를 비롯한 다수확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어 알곡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중요한 요구임.
-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는 사업임. 감자농사혁명을 더욱 발전시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함.

1) 로동신문 사설을 발췌 요약함.

- 감자농사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함.
 - 우량품종의 감자종자생산기술, 감자썩튀기축진기술, 감자역병과 병충해를 막기 위한 기술, 감자생산에서 물, 비료, 농약주기의 일체화기술을 비롯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함.
 - 별방지대 앞그루감자농사에서도 생육기일이 짧고 소출이 많이 나는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정보당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함.
- 감자농사에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함.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할 때 감자농사의 물질적토대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음.
 - 감자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연유와 비료,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함.
-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함.
 - 감자 산지들에서는 물론 모든 농촌들에서 감자농사를 장려하여 다수확단위들을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맡겨주어야 하고 행정경제 일꾼들이 감자농사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함.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로동신문 2018.10.20.)²⁾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생산과 건설에서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임.
 -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임.
- 경제건설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생산과 건설에서의 질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임.
 - 아무리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건설속도를 높인다고 하여도 질이 보장되지 못하면 재생산, 재시공을 막을 수 없으며 귀중한 노력과 자재, 자금을 낭비하고 경제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됨. 질제고를 떠난 생산의 장성과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음.
-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에서부터 전환을 가져와야 함.
 -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사상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달라붙는가 하는데 따라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이 결정됨.

2) 로동신문 사설을 발췌 요약함.

-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자면 제정된 규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국규를 법으로 여기고 국가가 정한 제도와 질서, 기술적 요구대로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함. 이와 함께 생산과 건설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함.
-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과 설비의 현대화를 다그쳐야 함.
 -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 공정과 기계설비, 제품포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함.
 - 현대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 최신식 공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우리의 자원에 기초하여 견고하고 시대적미감에 맞는 질 좋은 건재들을 적극 개발이용 해야 함.
- 생산자, 건설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함.
 -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조건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조직화해야 함.
 -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근로자들의 땀이 배인 창조물들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바로하여 그들 모두가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높은 기능을 소유하며 질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함.
-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문화확립에 큰 힘을 쏟아야 함.
 -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안팎을 사회주의 맛이 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기대들을 알뜰히 거두고 합리적으로 규모있게 배치해야 함.
 - 모든 건설장들에서는 주변환경꾸리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먼지와 오물 등으로 건축물의 질보장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품질감독사업과 건설감독사업을 개선 강화해야 함.
 - 감독체계와 규율을 정연하게 세우고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에 대한 검사를 당적, 국가적 립장에서 엄격히 해야 함.
 - 경쟁과 전투를 전면에 내걸고 건설을 날림식으로 하거나 생산 숫자에만 신경을 쓰면서 질이 낮은 제품을 다량생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함.
- 감독부문 일꾼들은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국가와 인민 앞에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언제나 원칙적 입장에서 검사를 간간히 하고 요구성을 높여야 함.
-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제고를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함.

-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질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질을 중시하는 기풍이 하나의 풍조로 되게 하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질량적으로 총화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함.

◆ 과학영농

전국감자연구, 생산, 가공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진행(조선중앙통신, 2018.10.01.)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와 농업연구원의 주최로 전국감자연구, 생산, 가공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량강도과학기술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농업연구원, 량강도농업과학연구소, 혜산농림대학,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석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감자생산을 늘리고 생산과 가공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수십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음.
 - 《평지대에서 합리적인 감자채종방법에 대한 연구》, 《감자가루곰팡이에 대한 연구》 등이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올리는데 실천적의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높은 평가를 받음.
-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고, 발표회기간 참가자들은 감자병원균들의 분자적 종합 진단방법과 감자원종 생산에서 온도처리방법에 대한 강의를 받았음.
 - 또한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감자가공품, 식물성농약 등이 출품된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나눔.

전국버섯재배기술경험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8.10.25.)

- 전국버섯재배기술경험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23일과 2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 류경버섯공장, 함흥버섯공장 등 수십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 일꾼, 버섯재배공들이 발표회에 참석하였음.
 - 발표회에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6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됨.
 - 《궁릉식박막온실에서 버섯의 여러그루재배기술》, 《사계절버섯재배에서 이룩한 몇가지 경험》, 《멸균로에서 려과장치도입》을 비롯한 논문들이 버섯 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와 관련 이론실천적 의의가 큰 것 여겨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

- 발표회기간 버섯병해충막이기술, 폐기질을 원료로 하는 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 생산기술 등에 대한 강습이 진행되었음.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8.10.26.)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 1116호 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음.
- 여러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등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한 170여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음.
 - 《위성화상자료해석에 의한 가물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전문가체계프로그램에 의한 논벼재배의 과학화》, 《감자재배에서 유기광물질영양액의 처리효과》, 《수평아래먹임식 벼종합탈곡기의 구조개선》등의 논문들이 이론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여겨져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전국잡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8.11.9.)

○ 전국잡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7일과 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됨.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해주고치생산사업소, 항구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한 수십 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 박사원생, 현장 일꾼들이 참가함.
-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반영한 70여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발표회에 제출되었음.
 - 발표회에서는 《뽕밭토양의 활성화와 뽕잎다수확을 담보하는 뽕나무그루시비에 대한 연구》, 《1.8% 차아염소산수생산과 누에치기에서의 소독효과》, 《식물발효액에 의한 질 좋은 씨모생산방법》, 《누에첨가제 <봉화수>에 의한 고치생산성》을 비롯한 논문들이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여겨져 높은 평가를 받음.
- 발표회 기간 잡업 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도 진행됨.

제2차 전국산림과학기술전시회 진행(로동신문 2018.11.10.)

○ 제2차 전국산림과학기술전시회가 6일부터 9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됨.

- 국토환경보호성과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전시회는 산림조성과 보호부문, 산림정보기술부문, 산림기계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됨.
-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립업성을 비

롯한 과학교육부문과 산림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혁명 소조원, 현장 일꾼 등이 내놓은 전시품들과 논문들이 제출됨.

- 전시회기간 중 발표회와 학술토론회도 진행됨.

- 전시회에서는 나라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 할 《강원도양묘장 통합생산체계》,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지원체계》, 《수지를 리 용한 우리 식 해가림발생산 공정에 대하여》등의 전시품들과 논문들이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여겨져 높은 평가를 받음.

○ 9일에는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 참가자들에게 컵 과 증서들이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음.

과학농사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 - 농업연구원에서(로동신문 2018.11.14.)

○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이 과학농사로 연구 사업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함.

- 작물재배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두벌농사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 하여 앞그루가을밀과 뒤그루강냉이의 씨뿌림시기를 정확히 확정함으로써 정보당 소출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두벌농사재배기술지표를 확증함.

○ 농업화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알곡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벼종자영양피복제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농업화학연구소 과학자들은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수십종의 각종 설비와 장 치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였으며 과학적인 공정별 운영 조작체계도 세움.

- 전국각지에 요구되는 수백 톤의 벼종자영양피복제를 제기일에 생산보장 하는데 기여함. 이 와 함께 현장도입 시험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여러 종류의 효능 높은 살초제와 살 충제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함.

○ 농업정보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과학농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농작물생육예보를 작성하여 올해에만도 수십 차례에 걸쳐 전국의 농업지도 기관들과 생산현장들에 알려줌으로써 농 작물비배관리와 병해충구제대책을 제때에 세우도록 함.

- 위성정보해석기술과 농작물생육모의기술을 이용하여 올해와 같은 불리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전국적인 협동농장별 알곡 예상 수확고를 높은 정확도로 평가함. 뿐만 아니라 간석지생태 지역을 정확히 구분하고 간석지 논에서의 논벼품종배치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과학농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함.

○ 토양학연구소의 과학자들도 토양에 따라 질소, 린, 카리비료를 과학적으로 시비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완성하고 어느 한 도의 수관정보의 논밭에 도입하여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게 함.

-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소의 미생물비료중간공장에 년산 수십 톤 능력의 미생물 비료 생산 공정을 꾸려놓았으며 새로운 동결보관방법을 확립하여 수천점의 미생물 균그루를 동결보관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둬.

농업부문에서 모범과학기술보급실쟁취단위 배출(로동신문 2018.11.26.)

○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10여개의 첫 모범과학기술보급실 쟁취단위들이 배출되었음.

- 농근맹중앙위원회의 일꾼들은 조직사업을 통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 등을 진행하였고 전국의 수많은 농장들의 농업과학기술보급과 운영이 더욱 활발해지는 성과를 달성함.

○ 한편, 농업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하여 기술자, 농업근로자들이 깊은 지식을 쌓아 나가게 함.

-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월 3차례 이상 정상적으로 보급사업에 참가하여 수백명의 농업근로자들이 원격교육을 받으며 공부하게 하고 있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과 과학기술전당, 농업연구원의 연계를 통해 최신 과학기술자료기지 수만 권을 구축함.

-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통하여 창의고안명수, 발명가 대열을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논벼 정보당 10톤 이상을 생산하여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 다수확농장원대열을 끊임없이 늘려감.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는 기술학습을 진행하여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지식과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감. 그리하여 기사, 기수대열을 30% 늘였으며 10여명이 석사학위를 수여받는 성과를 거둬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기상관측종합체계와 감시카메라, 화상회의망, 농장경영업무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적인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진행함.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는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과학기술보급단위들과 국가망을 통하여 새 기술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생산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둬.

전국농업부문 과학연구토론회 및 성과전시회 개막(로동신문 2018.11.28.)

○ 농업연구원창립 70돌을 맞으며 전국농업부문 과학연구토론회 및 성과전시회가 27일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개막함. 토론회 및 성과전시회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과학농사분과, 수의축산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및 전시회에는 농업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집집승육종과 사양기술 및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120여건의 과학기술제안들이 제출되었으며 250여종에 700여점의 전시품들이 출품됨.
- 이 기간 농업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반영한 농업과학착상발표회도 진행되었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농업부문, 과학교육기관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함.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농업연구원 농업정보연구소 등에서 내놓은 《8월풀 2》호의 특성과 해양심층수를 오리사양에 적용한 효과에 대한 연구, 농업기상관측기를 비롯하여 생산실천에서 의의가 큰 과학기술제안들과 전시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음.

농업과학연구기지건설 적극 추진(로동신문 2018.12.10.)

-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농업연구원 본원지구 5개 연구소대상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골조와 외부미장공사가 50% 계선을 돌파하였음. 농업생물학연구소와 식물보호학연구소 골조공사가 완성되었으며 농업화학화연구소, 농업나노기술연구소, 골조공사 실적은 90% 계선을 넘어섬.
- 11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양학연구소 건설을 맡은 근로자들은 이미 골조공사와 창문달기, 외부미장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내부공사를 현재 진행 중임.
- 식물보호학연구소와 농업생물학연구소건설을 맡은 근로자들은 철근가공을 앞세우고 휘틀조립방법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골조공사를 완공함.

과학농사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 농업연구원에서(로동신문2018.12.20.)

- 농업연구원에서 과학농사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달성함.
- 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염기견딜성이 강한 벼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함. 새로운 육종방법들을 이용하여 선발한 여러 계통을 표준 품종들과 간석지논에서 특성검정 및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선발된 여러 계통이 표준 품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함.
- 농업나노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나노규소비료 생산에 필요한 나노재료, 계면활성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여 전국의 어려나노규소비료 생산기지에 보장해주어 농업생산에 적극 기여함. 또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나노기능성 박막도 개발함.

- 새로 개발된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은 일반박막에 비하여 당김세기와 늘림률, 로화견딜성이 훨씬 높고 원가가 적으면서도 사용기간이 긴 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 과학자들은 어느 한 단위와의 창조적협조 밑에 올해에만도 10여만㎡의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을 생산하여 현실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알곡생산에 이바지함.
- 식물보호화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벼종자에 피해를 주는 선충을 100%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소독제를 개발하고 전국의 많은 협동농장에 도입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임. 또한 올해 들어와 새롭게 완성한 많은 량의 농약적심제를 여러 단위에 보내주어 니코틴농약에 의한 농작물해충구제효과를 높임. 이와 함께 생물학적구제방법으로 농작물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함.

농업연구원 강냉이연구소와 발작물연구소 준공식 진행(조선중앙통신 2018.12.25.)

○ 농업연구원 강냉이연구소와 발작물연구소 준공식을 24일 진행되었음.

-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두일,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봉, 농업연구원 원장 김광옥,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강냉이연구소와 발작물연구소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함.
- 내각부총리는 연설사에서 기후풍토에 적응한 우량품종, 다수확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농업 과학연구사업 진행과 생물공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다수확우량품종을 더 많이 육종해내고 농업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연구소들을 둘러보았음.

그림 1 농업연구원 강냉이연구소와 발작물 연구소 전경



(계속)



자료: 로동신문. 2018.12.25.

농업연구원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로동신문 2018.12.30.)

○ 농업연구원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28일에 진행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 관계부문 일꾼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농업연구원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함.
- 보고회에서는 김광옥 원장이 기념보고를 함.
 - 모든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종업원들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함과 종자연구사업에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비료가 적게 드는 종자,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자연피해에 잘 견디는 종자를 비롯한 우량품종들을 많이 육종하여야 할 것에 대해 강조함. 더불어 정보기술과 나노기술에 토대하여 정밀농업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기술을 연구완성하며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기술제품들을 개발도입에 대하여 강조함.
 -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를 보호하고 지력을 높이며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유기농법, 두벌농사방법, 물절약형농법, 임농복합경영방법 등 여러가지 농사방법을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함.
 - 기후풍토조건에 적응된 과일나무품종들과 영양가가 높은 기능성농산물종들을 육종도입하고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과일과 남새생산의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해 나가야함을 강조함.

◆ 기타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힘차게 다그쳐온 한해 - 올해 산림복구 전투에서의 성과와 교훈을 놓고(로동신문 2018.12.10.)³⁾

-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였고 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한층 강화되고 나무모 생산과 심기,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 산림보호 등 산림복구 사업은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달성되었음.

〈나무모증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

- 나무모를 키우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 생산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음.
-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양묘장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 감으로써 나무모 생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도 튼튼히 다져 놓았음.
- 강원도의 뒤를 이어 자강도와 평안북도, 평안남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실현에 이바지할 토지절약형, 노력절약형의 양묘장을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음.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각종 규격의 수지경판과 나무모용기, 해가림발을 비롯한 산림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기자재공장을 완공함.
 - 중앙양묘장에 나무모전시장과 야외적응구, 싹틔우기온실, 통합생산조종실 등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성과를 이룸.
- 시, 군들에서는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사업을 진행하였음.
 - 문덕군이 이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냄. 산림복구전투 1단계총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군에서는 올해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모체양묘장의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감.
 - 수지경판온실을 새로 번듯하게 건설하고 야외적응구에는 관수대차를 제작설치하는 등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 조건을 보다 훌륭히 갖추어나갔고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함.
 - 장연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실리 있는 무동력양수기를 창안 제작하여 모체양묘장의 관수체계를 원만히 세우고 평화질석과 산화린회석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능률적인 공정을 새롭게 꾸려나감.

3) 로동신문을 발췌 요약함.

- 송화군산림경영소에서는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거름원천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량의 흙보 산비료를 생산함. 그리고 종자선별기, 두둑짓는기계 등을 창안 제작하여 양묘작업의 기계화수준도 부단히 높여나갔고 연재를 가지고 만든 효능 높은 성장촉진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지난해의 1.5배가 넘는 나무모를 생산함.
- 세포군과 리원군, 태천군, 증산군, 정평군, 연탄군, 전천군을 비롯한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나무모 생산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림.

〈높은 사름률보장, 늘어나는 푸른 숲〉

○ 자강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름률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올해의 나무심기에서 높은 실적을 냄.

- 경제림과 보호림, 품치림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면서 혼성림조성방법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나무심기과제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음.
- 산림복구전투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해지는 속에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에서도 계획보다 많은 면적에 나무를 질적으로 심어 높은 사름률을 보장하였음.
- 라선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시기별비배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단위별작업진행정형을 현장에서 실속 있게 총화평가하고 부족점은 제때에 수정하여 무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
- 강동군에서는 고온과 가뭄현상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에 맞게 물보장을 특별히 중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나무들이 자그마한 피해도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함.
- 평안남도에서는 심은 나무는 나무를 심은 단위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담당제를 실시함.

〈산림복구전투를 추동한 과학기술성과〉

○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올해 황해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등 각지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음.
- 경제림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많은 면적의 수유나무림을 우량품종림으로 개조하였고, 새 품종의 잣나무림조성면적을 지난해보다 3배나 늘리고 자체의 힘으로 천연나무모영양활성제를 대량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사들은 삼목에 의한 방법으로 새 품종 잣나무모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함. 새 품종 잣나무의 모생산과 열매생산주기를 절반정도 단축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림.

- 산림기계연구소에서도 휴대용동력분무기, 비행분무기, 큰 나무줄기약물주입기, 새형의 전기식살충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계들을 만들어 산림병충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함.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로 살충효과를 높이고 나무의 영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농약과 물기흡수보존 및 성장촉진제들을 개발도입하는 등 도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함.
- 함경남도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나무의 사름률과 초기생장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많은 양의 외생균뿌리균제를 생산하여 도의 산림복구사업에 크게 이바지함.
- 종합파종기, 나무모뿌리자르는 기계와 같은 능률적인 산림기계들의 제작도입으로 많은 노력과 토지를 절약하고 높은 사름률을 보장할 수 있게 한 강계농림대학, 심은 나무의 물기보장과 뿌리생육을 높여주는 땅속습기흡수제, 삼바리를 이용한 성장촉진제를 연구도입한 통천군, 나무모뿌리의 물기증발을 막고 심은 나무의 사름률 보장과 모살이기간 단축에 효과적인 방법을 완성한 금강군산림경영소를 비롯하여 올해 각지에서는 산림복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함.

〈사회적인 관심속에 보호되는 산림자원〉

- 건설건재, 석탄공업, 철도운수, 화학공업, 농업부문에서도 목재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 실천하여 성과를 거둠. 특히 경소마그네샤를 가지고 벽부재, 합판, 천정판, 지붕판, 휘틀 등의 건재품을 대량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준 단천지구광업총국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목재를 전혀 쓰지 않거나 그 소비량을 종전보다 훨씬 줄일 수 있게함.
- 땔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가는 속에 실정에 맞는 좋은 방법들이 연구도입됨.
- 라진지구연료사업소에서는 도시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던 각종 폐기물을 땔감문제해결에 효과 있게 이용한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는 생산능력을 종전보다 2배로 확장함.
- 선봉지구연료사업소에서는 갈탄버럭에 의한 구멍탄생산 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였고 땔감으로 이용되던 수천㎡의 나무를 절약함.
- 해산시에서는 연간 수백만장의 생산능력을 갖춘 연소첨가제에 의한 구멍탄생산기지를 건립함.
- 문천시와 법동군, 김화군을 비롯한 강원도안의 여러 지역에서도 구멍탄연소기술공정을 확립하고 초무연탄화성연소첨가제를 개발하여 산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함.
- 올해의 산림복구전투에서는 이렇듯 혁신적인 성과들이 달성된 반면에 결함들도 나타남.
 - 상반기기간만 보아도 일부 단위들에서는 조건만 앞세우면서 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함.

-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해에 건설한 모체양묘장의 방들을 창고로 이용함.
- 룡강군에서는 모체양묘장의 나무모발면적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바람막이숲과 관수 체계도 변변치 않아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함.
- 녕원군과 신원군에서 올해의 산림복구전투를 매우 소극적으로 하였음.
 - 녕원군에서는 읍지구주변의 산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나무들을 뽑아버리고 다른 식물을 심는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신원군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가꾸기를 무책임하게 함.

2 농림축산업

◆ 농업

강냉이가을걷이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 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18.10.02.)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해 황해북도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에 힘을 쏟고 있으며 60% 이상의 성과를 내었음.
- 사리원시, 송림시, 중화군, 장풍군, 상원군 등에서 성과를 내었음. 군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 등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 -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을 결속, 낱알털기 본격적으로 추진(로동신문 2018.10.25.)

- 전국적으로 지난 10월 22일까지 벼가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고 10월 24일 현재 벼단 실어들이기는 82%, 낱알털기실적은 51% 계선을 돌파함.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꾼들은 주도면밀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 당, 행정책임자들, 시, 군책임 일꾼협의회를 열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최단 기간에 마무리 짓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진행 중임.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시, 군들에게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당일 업무는 당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편하고 있음.
- 벼가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도에서는 지금 벼단실어들이와 낱알털기를 진행 중이며 23일 현재 각각 88%, 53%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 안악군에서는 10월 11일까지 벼가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고 낱알털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 안악군에서 제작한 220여대의 능률 높은 이동식탈곡기 활용과 포전담당책임제 시행으로 인해 10월 23일 현재 군의 국가알곡수매실적은 69%를 달성하였음.

- 이밖에도 배천, 신천, 재령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도 한창 낱알털기가 진행 중에 있음.

-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등 전국적으로 낱알털기가 한창 진행 중이며, 시, 도에서는 사회주의 특성에 맞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여 활발히 진행 중임. 23일 현재 벼단실어들이기 실적은 95%, 낱알털기는 45%를 달성하였음.
- 함경남도, 함경북도도 농촌에서는 지방 특성과 기후 조건에 맞게 조직과 설비점검을 하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으로 전야가 끓는다(로동신문 2018.10.27.)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 서해지구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낱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배천군, 해주시, 재령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낱알털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벼단실어들이기와 함께 벼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사업은 지난 25일 기준 벼단실어들이기는 96% 이상, 낱알털기는 56% 이상 달성되었음.
-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증산군, 숙천군의 일꾼들은 낱알털기를 위해 농장 작업반들과 교대별 조직을 운영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선천군, 운전군의 농업근로자들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음. 운전수들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용하여 벼단운반에 노력을 쏟고있으며 농업근로자들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황해북도에서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연탄군의 일꾼들이 화선식정치사업을 위해 교대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평양시와 남포시의 농촌들에서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 함경북도 농촌들에서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함주군, 영광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낱알털기와 수매를 끝낸 단위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음.

- 강원도 농촌들에서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도에서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낱알털기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 원산시에서는 올해 많은 이동식탈곡기를 생산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있음.
- 함경북도 농촌들에서도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명간군, 김책시, 길주군의 일꾼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진행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가을갈이성과 확대 - 황해남도과 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18.11.8.)

-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농촌들에서 가을갈이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
 - 룡산, 대추, 엄곶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가을갈이 일정을 수행하고 있음. 새길협동농장과 신천군의 농장들은 군농기계작업소의 기능공들을 통하여 현장에 나가 이동수리활동을 진행 중임.
- 논가을갈이에서 57% 계선을 돌파한 도안의 농촌들은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덕천시, 순천시, 북창군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음.
 - 덕천시의 농장들에서는 지대적 특성과 조직을 정비하여 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순천시 농장들은 기계정비를 질적으로 하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논을 갈아엎고 있음. 또한, 북창군은 작업반별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음.
- 다른 시, 군들에서도 부림소를 비롯한 갈이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가을갈이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낱알털기전투성과 확대 - 전국적으로 낱알털기실적 79%계선 (로동신문 2018.11.10.)

- 각지에서 올해 농사결속을 위해 낱알털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8일 현재 낱알털기 실적은 79% 계선에 이름.
- 벼종합탈곡기와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수천대의 탈곡기들이 만가동하는 속에 태천, 향산, 구장군을 비롯한 9개 시, 군의 230여개의 농장들에서 낱알털기가 성과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지금까지의 평균 실적은 8일 현재 90% 계선을 넘어서고 있음.
- 황해북도 시, 군, 농장들에서는 낱알을 수매를 따라 세우기 위해 수매기관들의 운전기재들을 이용하고 있음.
 - 8일 현재 사리원시, 름산, 서흥군을 비롯한 13개 시, 군의 근 200개의 농장들에서 낱알털

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적인 평균 실적은 94%의 계선을 넘어섬.

- 함경남도에서도 낱알털기가 마감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8일 현재 97%계선을 넘어섬.

낱알털기 성과적으로 결속 - 평양시에서(로동신문 2018.11.12.)

- 평양시안의 농장들에서 낱알털기를 통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구역, 군들에서 낱알털기 일정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함.
 - 만경대구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
 - 강동군에서 낱알털기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군 일꾼들은 침입식정치사업을 진행함. 또한, 화상회의를 통하여 앞선 단위들을 따라 배우고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시행함.
- 형제산구역, 사동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구역, 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많은 비료를 생산 - 송림시농기계작업소 유기질복합비료작업반에서(로동신문 2018.12.4.)

- 송림시의 일꾼들이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특별히 중시한 것이 있는데 유기질복합비료 생산문제임.
 -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질복합비료는 가루거름, 망간토, 《신양2》호복합균, 아미노산미량원소 복합비료, 고농도후민산염, 소석회 등의 합리적인 배합으로 만들어졌음. 화학비료에 비해 볼 때 그 효과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속기일도 2배나 된다는 것이 최근 몇 년 간의 농사 경험을 통하여 증명되었음.
-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이 유기질복합비료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져 가고 있음.

다음해 농사차비 적극 추진 -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로동신문 2018.12.8.)

- 황해남도안의 협동농장들이 다음해 농사차비를 준비 중임.
 - 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수행을 위해 조직사업을 조직함.
- 오국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에서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안군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일정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음.

- 군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진행 중이며 물길가시기, 유기질비료 생산을 비롯한 농사차비에서 성과가 달성되고 있음.

○ 신천군, 청단군, 태탄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해 진행 중임.

쌀로써 당을 받들어갈 일념안고 다음해 농사차비를 다그친다 - 각지 농촌에서
(로동신문 2018.12.9.)

○ 각지 농촌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쌀로써 당을 받들자!》는 구호아래 다음해 농사차비를 준비 중임.

- 삼지연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군이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현재까지 군적으로 수만㎡의 부사를 수송하여 3,000여 정보의 감자발효갈이를 진행하였으며 6,000여 톤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달성함.
- 대흥단군과 백암군을 비롯한 감자산지들에서도 감자밭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만경대, 순안, 사동, 락랑, 대성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모판용 영농자재와 흙보산비료 원료 확보, 농기계수리정비 등 농사차비를 착실히 진행 중임.
- 강동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농기계수리정비와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희천시 일꾼들은 청하협동농장에서 흙보산비료와 발효퇴비를 과학기술적으로 만들기 위한 협동농장별로 원료확보사업을 진행 중임. 명대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원료확보가 활기를 띠고 벌어지는 속에 현재까지 시적으로 8,000여 톤의 흙보산비료 원료를 확보하고 전반적인 농장에서 발효퇴비생산에 필요한 기질확보를 끝내는 성과를 거둠.
- 함경남도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으로 물길가시기가 99%계선에 이른 지금 모판 만들기과 영농자재준비, 유기질비료 생산을 비롯한 농사차비전투에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영광군 관수협동농장, 상증협동농장, 단천시 령산협동농장들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진행 중임.
- 황해북도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농사차비전투를 진행 중이며 미곡협동농장,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사리원시안의 농장들에서 거름생산을 하고 있음.

다수확의 첫 관문(로동신문 2018.12.9.)

○ 각지 농촌에서 다음해 알곡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다수확의 첫 관문은 바로 농사차비임.

- 다수확을 위한 첫 영농공정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준비사업임. 농사차비시기에 해야 할

일감은 많음. 종자준비로부터 시작하여 논밭갈이, 농기계와 농기구수리정비도 해야 하며 질 좋은 유기질비료도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야 함.

○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해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올해농사경험을 분석하고 다음해 농사대책안을 세워야 함.
- 도 시, 군, 농장들에서 지대적특성에 알맞은 논벼, 강냉이 등 알곡작물들의 품종을 선정하고 종자확보와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논밭 정보당 수십톤씩 내야함.

과수부문들사이의 2018년 사회주의생산경쟁총화 진행(로동신문 2018.12.14.)

○ 과수부문의 경쟁총화모임이 12월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 농근맹, 경쟁단위 일꾼들과 모범적인 근로자들, 과학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함.
-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실현을 중심과업으로 많은 단위에서 과수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계절별,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다음해에도 과일대풍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을 강조함.

실리있는 큰모씨뿌리는기계 창안제작 -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로동신문 2018.12.20.)

○ 큰모씨뿌리기에서 씨앗들의 영양면적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은 크고 튼튼한 모를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임.

○ 큰모씨뿌리는 기계는 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음.

- 우선 큰모씨뿌리기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함. 또한 많은 종자와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
 - 사람의 손노동으로 씨뿌리기를 할 때보다 종자가 25%~30%정도나 절약된다는 것이 시험과정을 통하여 증명됨.
- 이 기계는 구조와 동작원리가 간단하여 기계화작업반이나 수리분조가 있는 단위들에서는 얼마든지 자체로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이 농기계는 기계화작업반 한성권의 착상에 의하여 설계되고 그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 조성원들에 의하여 제작완성됨.

- 이 농기계는 제45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 출품되어 1등으로 평가 되었으며 농업부문에 널리 도입일반화해야 할 농기계들 중의 하나로 선정됨.

과학적인 작전밑에 세운 다수확목표 - 평안남도에서(로동신문 2018.12.20.)

○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다음해 농사차비를 준비 중임.

- 자료에 의하면 한달 남짓한 기간에 가을갈이계획을 끝낸 도안의 농장들에서 유기질비료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2만 톤을 더 생산하였으며 중요구간 물길가시기와 구조물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함.
- 도당위원회의 도농업부문 일꾼들은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고온과 가뭄, 큰물을 비롯하여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모든 포전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시에서는 거름을 정보당 40톤의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통해 농장들에서는 3만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흙보산비료 원료 확보 계획을 120% 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달성함.
- 북창군에서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정보당 1톤 이상의 소석회 생산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음.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50여개의 석회로를 보수하고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2,000여 정보의 포전에 널 소석회를 생산함.
- 올해에 다수확을 내는데서 고온과 가뭄, 큰물피해막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실천으로 체험한 숙천, 문덕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차비의 준비를 위해 물길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음.
 - 숙천군에서는 땅이 열기 전에 개천-태성호물길과 평남관개지선을 비롯한 5개의 중요물길과 갑문보수를 끝낼 목표를 세워 보수를 진행하였음.
 - 그 결과, 한달동안에 개천-태성호물길과 평남관개지선, 백암지선을 비롯하여 5개 중요물길에 대한 제방보강, 장석공사를 완료함. 연이어 해창강갑문의 10여개 수문수리보수를 20일 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둠.
 - 문덕군에서도 물길가시기와 구조물보수에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개의 구조물을 보수함.
- 다른 시, 군에서도 계획한 거름생산과 실어나르기, 활창대와 바람막이바자확보 등 다음해 농사차비 준비하고 있음.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있게(로동신문 2018.12.22.)

○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다음해 농사차비를 준비 중임.

〈자급비료 생산에 역량을 집중〉

○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다음해 농사차비를 준비 중임.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11월 말까지 논밭갈

이와 모판만들기를 완료하고 이어 백수십만 톤의 자급비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달성함.

- 운전군이 자급비료 생산을 위해 준비 중이고 태천군에서는 군급기관 일꾼들이 작업반과 분조들을 맡고 내려가 정치사업도 하고 농사차비에서 걸린 문제도 풀어주면 군안의 협동농장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통해 자급비료 생산을 150% 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달성함.
- 정주시와 룡천군, 염주군과 광산군에서도 자급비료 생산과 실어내기, 모판자재확보, 랭습지 개량 등 농사차비를 준비 중임.

〈수천정보의 흙갈이전투에 진입〉

- 황해북도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수천정보의 흙갈이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투에 진입한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도적으로 계획된 면적의 근 절반에 달하는 흙갈이를 진행하고 있음.
- 상원군의 흑우농장에서는 흙갈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묘송, 오봉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많은 량의 진흙을 포전에 실어냄.
- 룡궁, 청수협동농장에서는 달구지와 트랙토르, 화물자동차 등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많은 진흙을 포전에 실어냄.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 진행(로동신문 2018.12.27.)

-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12월 25일과 26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과학농사열풍, 다수확운동을 통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들의 토의되었음.
-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올해에 정보당 논벼 8톤 이상, 강냉이 10톤 이상의 소출을 낸 다수확농장, 작업반, 분조의 일꾼, 초급 일꾼, 다수확농장원들이 거둔 성과와 경험,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알곡생산에서의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정부의 간부들과 도당위원장들, 전국의 농장원, 농촌초급 일꾼들과 농업과학자, 기술자들 농업부문 지도 일꾼들, 성, 중앙기관, 연관 단위 일꾼들이 참석함.
- 보고자(박봉주 내각총리)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함.
 - 농장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부족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해결하고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들을 도입하여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관철에서 큰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함.

- 다만, 지난 기간 일부 농장과 단위들에서 종자생산과 보관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고 기후 조건과 포전별 특성에 맞게 품종배치를 바로하지 않았으며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키지 못한 결함들에 대하여 언급함.
-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함을 강조함. 또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물자,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농촌에 대한 전사회적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조함.
- 회의에서는 어랑군 운곡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영광군 상중협동농장,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순안구역 순안협동농장,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숙천군 칠리농장, 성간군 동산협동농장,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곡산군 덕흥협동농장, 황해남도농업과학연구소, 삼지연군 중흥농장, 금강군 현리협동농장, 재령군 남지협동농장,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만경대구역, 화대군 읍협동농장,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중강군 읍협동농장, 양덕군 동양협동농장, 정평군 서경협동농장, 광산군 렬호협동농장, 대흥단군 창평농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성천군당위원회, 홍원군 읍협동농장, 농업연구원, 배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등 대표자들이 모여 토론함.
- 논밭을 다수확포전으로 만들고 다용도화된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창안도입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인 것과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다수확농장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산간지대, 중간지대농사의 본보기 대한 경험들을 나눔.

◆ 임업

증산의 거세찬 동음, 생산활성화의 동음높이 경제건설대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자 연간 통나무생산 계획 빛나게 완수 - 유평림산사업소에서(로동신문 2018.10.2.)

- 유평림산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지난 9월 28일까지 연간 통나무생산 계획을 앞당겨 완료하는 성과를 거둬.
- 계획수행기간 사업소의 운수, 공무부문 노동자들은 운전기재들에 대한 점검과 제기되는 부족품보장과 설비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사업소가 연간 통나무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함.

연간 나무모 생산 계획 넘쳐 수행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에서(로동신문 2018.10.23.)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시기보다 수종이 좋은 나무를 10여 종을 늘리면서 나무모 생산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양묘장에서는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던 시기의 방법에서 벗어나 원림 녹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 이와 함께 앞선 나무모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병해충과 잡초피해를 받지 않고 옮겨 심은 후의 사름률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도양묘장건설 힘있게 추진(로동신문 2018.11.8.)

-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도양묘장 건설을 위해 열심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황해북도에서〉

- 도양묘장건설을 위해 황해북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수십정보의 면적에 관리청사, 살림집, 노동자합숙 등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생산구역 건물들에 대한 내외부미장공사 진행 중에 있음.
- 현장지휘부의 일꾼들은 현실조건과 여러 여건들을 조정하여 건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함경남도에서〉

-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도양묘장 건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건축공사에 필요한 강재, 목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이용하여 구내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적극 추진 - 천여 톤의 나무 종자를 채취
(로동신문 2018.11.12.)

-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를 벌려 나무 종자 채취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현재까지 천여 톤의 종자를 채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자강도에서 나무 종자 채취사업을 적극 진행하였음.
- 도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 종자 채취과제를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함.
- 전천, 우시, 초산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무 종자 채취에서 성과를 거둠.
- 전천군의 일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나무 종자를 많이 거두어 들였고, 우시, 초산군 일꾼들은 자체실정에 맞게 수종이 좋은 나무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시행하였음.
- 량강도에서 더 많은 나무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운흥군에서도 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나무 종자 채취에 큰 성과를 거둬.

현대적인 도양묘장건설 적극 추진(로동신문 2018.11.14.)

- 평안남도과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도양묘장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평안남도에서〉

- 평안남도에서 도양묘장 건설이 진행 중에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층으로 된 관리청사와 합숙, 편의봉사시설, 농약생산장 등에 대한 건축공사와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과 자연흐름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공사는 마감 단계에 이르고 있음. 또한 종자선별 및 파종장, 경기질생산장, 나무모저장고 등 여러 대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녕원군과 덕천시, 북창군, 개천시, 안주시, 회창군 등 여러 지역에서 양묘장 건설을 위해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음.

〈황해남도에서〉

- 황해남도에서 도양묘장 건설이 진행 중임.

- 일꾼들은 시멘트, 철근, 목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건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시공지도하고 있음. 도의 책임 일꾼들은 건설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현장의 문제들을 수렴하여 보완해나가고 있음.

- 관리청사건물건설을 맡은 벽성군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골조공사와 지붕공사를 끝냄.

- 봉천군, 장연군, 은천군 등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꾼 및 근로자들은 양묘장 건설을 위해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음.

수백만그루 나무모를 생산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에서(로동신문 2018.11.26.)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 110여종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둬.

- 고온피해를 막기 위해 해가림발을 설치하는 한편 관수설비관리를 정비하고 전원공급체계도

2중으로 세워놓아 어린 나무모들에 대한 사름물을 훨씬 높임. 또한 장식용 나무를 비롯한 여러종의 나무들을 그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게 풍토순화시켜 나감.

-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초급 일꾼들의 기술실무 수준을 높여나감.

○ 양묘청년작업반이 나무모 생산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음.

- 장미작업반에서도 찔레나무에 장미나무를 접하는 식으로 장미나무모 생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생산 제1작업반과 장식용 작업반에서도 나무모비배관리와 전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수지경판나무모온실 새로 건설 - 문덕군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8.12.8.)

○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위해 문덕군산림경영소 일꾼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수지경판나무모온실을 건설함. 연간 생산주기 2회전으로 수십만 그루의 튼튼한 나무모를 생산하여 산림복구전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됨.

- 수지경판나무모온실은 통합생산체계에 의해 나무모의 생육에 알맞는 온도와 습도, 빛세기 등 환경 및 영양조절을 실시간으로 조절이 가능함.
- 또한 관리공 한명이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작은 면적에서 쉽게 자랄 수 있게 공업화, 집약화된 노력절약형온실임. 그리고 종전에 비해 나무모 생산기일을 훨씬 단축하면서도 실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질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현대적인 온실임.
- 나무모 생산 공정에 대한 조종체계를 국가과학원과의 연계하여 확립함. 동시에 설비조립과 자동화된 해가림발 설치를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해결함. 자연흐름식관수체계도입에서 걸린 문제의 하나였던 1만여m의 비닐관도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체로 해결함.

그림 2 문덕군 산림경영소 및 경영소 내 양묘장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8.12.8.

겨울철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 - 함경남도림업관리국에서(로동신문 2018.12.23.)

- 함경남도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하고 있음. 겨울철 생산에 진입하여 11월 ~12월에도 매일 계획을 145% 이상 수행하고 있음.
- 장진림산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나무베기와 아지따기 등 생산 공정마다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 설비가동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150% 이상 수행하였음. 도안림산업소, 허천강목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산지통나무생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음.
- 도안림산업소에서는 서리치기를 앞세우고 나무베기공, 밀대공, 아지따기공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이나르기에 소발구와 통쏘이운반을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하고 있음.
- 허천강목생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에 집중하고 작업소들 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통해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축산업

전면적인 총공세로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연말전투성과 계속 확대 - 각지 축산기지들에서(로동신문2018.10.21.)

- 축산기지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각 축산기지에서 연말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성담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더욱 분발하고 있으며, 구성시의 일꾼, 근로자들과 함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을 마감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한편,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알곡먹이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데 힘을 쏟고 있음.
- 특히, 람조류 단백질, 토착미생물에 의한 발효먹이, 큰단백폴로 만든 폴절임 등을 대적으로 이용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 함주돼지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생산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신양2》호복합균으로 먹이를 발효처리 하여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종전보다 많은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돼지의 증체률을 높이고 있음.

많은 《애국풀》을 생산 - 각지에서(로동신문 2018.10.29.)

- 올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확고와 영양가가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인 애국풀⁴⁾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4) 인민군 종자연구농장인 제810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이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여러 종의 벼과 식물을 섞음임(교잡)하여 2015년 전후로 개발에 성공한 다년생 식물임.

- 많은 면적에 애국풀 종자모를 옮겨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정보당 생산량을 늘림. 그리고 조단백질함량이 많고 여러 가지 미량원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애국풀을 집짐승먹이로 적극 이용함.
- 남포와 시안의 해당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김매기를 비롯한 비배관리 방식을 이용하여 많은 애국풀을 생산함.
- 평안북도 축산전문협동농장들에서도 애국풀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둠.
-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국풀 종자모를 계획에 2배 이상 되는 면적에 옮겨 심었고 한해 비배관리를 통하여 정보당 150톤의 애국풀을 수확하였음.
 - 농장에서는 애국풀로 집짐승기르기에 필요한 먹이량의 40%를 보장하면서도 연간 축산물 생산 계획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둠.
- 창성군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도 애국풀에 관한 사업을 통해 많이 생산하였고 애국풀을 이용한 효과적인 먹이가공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임.
- 황해북도 은장축산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계획된 면적의 포전에서 정보당 백수십톤의 애국풀을 수확하여 풀절임을 만들거나 말라워 가루를 낸 다음 알곡먹이와 섞어 집짐승기르기에 적극 이용함.
 - 농장에서는 축산에 필요한 먹이의 많은 몫을 애국풀로 보장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거둠.

◆ 농식품 및 기타 작물

지난해에 비해 누에고치 증산 - 각지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로동신문 2018.11.20.)

- 잠업비단공업국 아래 각지 고치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누에고치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함.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잠업비단공업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수십 톤의 누에고치가 증산됨.
 - 황해남도안의 고치생산사업소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지난해에 비하여 누에고치생산이 1.2배 증가하였음. 신천고치생산사업소도 누에고치생산수준을 지난해보다 훨씬 높이는 성과를 달성함.
 - 남포시의 항구고치생산사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높은 누에고치생산실적을 기록함. 동림, 정주, 태천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고치생산사업소와 만경대, 사동, 형제산, 삼석고치생산사업소도 누에고치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

영양가 높은 기능성식료품 개발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로동신문 2018.12.4.)

- 최근 공장에서는 스피룰리나콩우유가루, 프룩토올리고당요구르트, 케피르, 콩신젓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성식료품들을 개발함.
- 이번에 개발된 스피룰리나콩우유가루는 21세기 가장 이상적인 식료품으로 알려진 스피룰리나를 콩우유가루에 첨가하여 만든 기능성 건강제품으로서 어린이들의 면역강화와 성장발육에 대단히 좋은 식료품임.
- 사탕가루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우리의 천연단맛감을 이용하여 콩우유가루를 개발하는 성과도 달성함. 또한, 연구사들은 다시마콩우유가루, 여러가지 기능성단묵시제품도 개발함.
- 콩눈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이소플라본을 보충하여주는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둠.
- 프룩토올리고당을 제조하여 여러가지 기능성음료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구미에 맞고 영양보충에도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새 제품도 개발함.

과학기술의 힘으로 버섯을 증산 - 각지 버섯공장에서(로동신문 2018.12.6.)

- 각지 버섯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버섯 생산에 많은 성과를 거둠. 올해에 버섯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 함.
- 류경버섯공장에서는 원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사업과 함께 기술학습을 진행하여 버섯비배관리의 과학화를 이룸. 특히 멸균로에 공기소독장치를 설치하고 무균화 된 공기를 주입하여 오염률을 현저히 낮춤.
- 공장에서는 온실재배장들에 털검정버섯품종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온실의 연중 온도조건에 맞게 계절별 여러 가지 품종재배를 과학화하여 생산함.
- 해주버섯공장에서는 이동식소형강냉이속분쇄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함으로써 종전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그 성능을 높임. 또한 소독에 나노살균제를 이용하여 원가를 낮추면서도 많은 버섯을 생산함.
- 정방산버섯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목화씨껍질을 이용하여 버섯 생산을 늘일 수 있는 이상적인 대용기질혼합처방을 찾아내어 적극 도입함.

지난해보다 많은 다수확자 배출 - 각지 고치생산사업소에서(로동신문 2018.12.7.)

- 올해에 각지 고치생산사업소에서 누에고치생산을 늘려 전국적으로 뽕밭 정보당 500kg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한 17개의 다수확작업반(분조)과 500kg이상, 최고 1톤 이상을 생산한 수백명의 다수확자가 배출됨.

- 동림고치생산사업소 룡연작업반에서는 뽕밭 정보당 2만 그루 이상의 뽕나무를 밀식하고 재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여 뽕잎 생산을 늘림. 또한, 누에치기기술을 습득하고 병해충구제에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받아들여 이전에 비해 소독효과가 좋은 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누에의 생존률을 훨씬 높임.
 - 또한 작업반축사에서 돼지, 염소를 비롯한 수십마리의 집짐승을 기르는 동시에 세대당 돼지 2마리이상 길러 나온 거름으로 지력을 높여 뽕나무밀식재배가 은을 내게 하여 자체의 힘으로 큰누에잠실 2동과 누에고치건조장을 건설하고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합격품 비율을 90% 이상 유지함. 뽕밭 정보당 502.6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올해계획을 153%를 달성함.
- 평원고치생산사업에서도 35톤의 흙보산 비료와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뽕밭 정보당 510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올해계획을 170%를 달성함.
- 용진고치생산사업소 송정작업반에서는 돼지, 오리를 비롯한 수십마리의 집짐승을 길러 많은 거름을 뽕밭에 내어 정보당 9톤의 뽕잎을 생산함. 특히 누에의 영양을 개선하고 병해충피해를 막아 430kg의 누에고치를 생산함.
- 온성고치생산사업소는 저온피해가 심한 북부산간지대에서 200kg의 다수확을 내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함.
- 황주고치생산사업소는 1만 5,000여 그루의 뽕나무묘목을 생산함. 또한 수십 톤의 거름을 내고 5동의 가설막 자재와 소석회, 각종 영양제를 마련하여 누에치기를 책임적으로 진행한 결과 1톤 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다수확자가 되었음.
- 시중군 종인협동농장은 빈땅을 찾아 1만여 그루의 뽕나무를 밀식하여 많은 뽕잎을 생산함. 그리고 여러동의 가설막을 설치하고 나래로 고온피해를 막았으며 각종 영양제를 마련하여 누에치기를 하여 1톤 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함.
- 금야고치생산사업소는 지난 20여년 간 척박한 뽕밭 2정보를 맡아 올해 고온피해를 막기 위해 가설막 안에 물주머니를 만들어놓고 찬물을 갈아대면서 노력하여 1톤 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함.

삼지연들쪽음료공장건설 마감 단계(로동신문 2018.12.12.)

- 삼지연들쪽음료공장건설이 마감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건축공사가 끝나고 내부망공사와 설비조립, 지대정리 및 원림조성사업이 진행 중임.

3 국토 관리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적극 추진 - 수백km의 강하천정리 진행(로동신문 2018.11.12.)

-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 정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수백만 m^3 의 강하천바닥파기, 장식공사 등이 진행되어 연 수백km구간의 강하천이 정리됨.
- 평안북도 구장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만 m^3 의 강하천 바닥 흙을 파내고 제방을 쌓은데 이어 장식공사를 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게 함. 신의주시와 운산군, 선천군, 의주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도 강하천정리 공사가 진행되었음.
 - 이밖에도 라선시, 함경북도 북청군, 신포시 등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계획된 기간과 구간에서 강하천 정리 공사를 진행하여 성과를 거둠.

어랑천저수지건설 적극 추진 - 함경북도에서(로동신문 2018.11.22.)

- 함경북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랑천저수지건설작업 진행 중에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수백m에 달하는 취수물길굴도갱과 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완료되었고 기초 콘크리트 작업이 80%계선을 넘어섬.
 - 어랑천저수지가 건설되면 어랑군과 명간군의 수천정보의 논밭들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보장하여 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면서도 알곡소출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일 수 있음.
 - 또한, 저수지와 대인공호수가 생겨 이곳을 종합적인 양어기지로 꾸릴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됨.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수천m의 방조제 건설 - 각지 간석지건설장에서(로동신문 2018.12.4.)

- 각지 간석지건설장에서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간석지건설자들은 최근 3개월 동안 공사속도를 높여 105만 여 m^3 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m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성과를 거둠.
 - 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광란하는 날바다와 싸워 지난 11월 15일까지 300여만 m^3 의 막돌과 토량으로 수십리 방조제를 쌓아 홍건도간석지 2단계 1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둠.

- 장송, 다사,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에서는 채석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합리적인 굴진방법과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굴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높은 실적을 올림.
- 황해남도 양화, 청단, 웅진 및 평안남도간설지선설종합기업소도 간석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중요구간 물길보수공사 진행 - 문덕군에서(로동신문 2018.12.4.)

- 얼마 전 문덕군에서 어룡지구의 물길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어룡지구의 수백정보 농경지에 생명수를 충분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음.
- 장마철에 흠이 쌓이는 구간들에 구조물을 건설하고 양수장들을 재건축함.
- 한편 1단양수장개건공사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기초콘크리트작업을 짧은 기간에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블록생산과 건축공사와 건물내외부미장 공사를 완료함.

함흥남새전문농장 중심마을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2018.12.15.)

- 함흥남새전문농장 중심마을이 완공됨.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됨. 마을에는 문화주택들과 농업과학기술보급실, 문화회관, 탁아소, 유치원 등이 갖추어져 있음. 도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함흥시와 함흥남새전문농장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함.
- 준공사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전투와 관련 준비 및 성과와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해마다 남새와 알곡생산을 늘리며 마을을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할 것을 강조함.

그림 3 함흥남새전문농장의 준공식



자료: 로동신문. 2018.12.15.

국토관리성과 확대, 면모 일신(로동신문 2018.12.24.)

○ 개성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시에서는 올해 570여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120km의 도로기술개건, 수십km의 강하천들에 대한 제방 및 호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살림집, 공공건물들을 건설 및 보수하고 10여만㎡의 녹지를 조성함.
- 개성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수만㎡의 성토공사와 2,300여㎡의 웅벽쌓기 공사를 끝내고 도로들이 큰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호벽설치를 완료함.
- 개성자동차사업소, 개성송악산피복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죽배천석축공사와 신평리해안방조제공사를 완료하고 수십km구간의 강하천들을 정리함.
- 봄철, 가을철나무심시기간 시의 산림부문에서 지리적 특성에 맞게 단위별로 나무심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여 사름물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지난해보다 1.2배나 더 많은 나무를 심음.

관개공사에 역량 집중 -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8.12.25.)

○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새 물길공사, 저류지확장공사, 물길가시기를 비롯한 관개공사를 진행 중임.

- 배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굴착기와 운반수단들을 집중시키는 한편 장석공사를 위한 돌채취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여 20여일 동안에 5만여㎡의 토량을 처리하여 1,100여m의 새 물길을 형성하고 양수장들을 건설함.
- 청단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십리의 물길가시기를 진행하였고 10여일 동안에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새 물길을 만들었음.
- 은천군에서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물길가시기계획을 끝냄. 은률군, 태탄군, 봉천군 등 다른 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물길가시기를 비롯한 관개공사가 진행 중임.

4 기타 동향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유기농업(로동신문 2018.10.21.)

○ 최근 유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히 벌어지고 있음.

- 유기농업은 생산과정에서 비료나 농약, 성장촉진제, 집집승먹이첨가제, 살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로 작물을 자래우거나 유기사료를 가지고 집짐승을 키우는 농업을 말함.

- 화학비료나 농약과 같은 화학적 수단은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농산물과 생태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줌.
 - 그러나 유기농업에 의한 생산된 식품은 맛이 좋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을 예방함.
- 유기식품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늘어나 국제시장에서 유기농산물의 가격은 일반제품보다 20~50% 더 비싸며 심지어 가격이 배로 높은 유기제품도 있음.
 - 많은 나라들이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농업생산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유기농법은 이미 100여개의 나라에서 널리 적용되었으며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재배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유기작물이 재배면적은 이미 2,200만여ha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기구들로부터 야생수확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로 인증을 받은 면적은 1,070만ha에 달함.
- 중국에서는 전국 각지에 유기식품기지들이 생겨났으며 동북 3성은 물론 운남, 강서 등지에서도 유기농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최근시기에는 유기콩과 유기락화생, 유기차잎, 유기해바라기씨, 유기꿀 등 각종 유기제품들이 개발, 생산되고 있음.
- 인도에서는 유기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물비료와 생물살충제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에 보조금을 내주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화학비료의 수입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던 쿠바에서도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오늘날 쿠바에서는 유기농법에서 세계일류급의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음.
 - 알라마르협동농장은 쿠바를 대표하는 유기농장으로서 이곳에서는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의 힘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남새를 재배하고 있음.
 - 단적인 실례로 농장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법을 받아들임. 지렁이를 이용하면 소의 배설물을 그대로 퇴비생산에 이용할 때보다 짧은 기간 내에 질 좋은 비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함.

인도네시아대사관 성원들 약수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로동신문 2018.11.7.)

- 주북한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6일 강서구역 조선인도네시아친선 약수협동농장 일손을 도움.

-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둘러본 다음 영농작업을 위해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움. 또한, 대사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음.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로동신문 2018. 11.7.)

- 인간이 생활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오물이 생겨나게 됨.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생태계를 심히 파괴하고 있음.
 - 최근에 국제환경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약 30만 톤의 수지오물이 지중해에 버려지고 있어 바다생태계가 위협에 처해있음.
- 오늘날 오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에티오피아에서 오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폐기물발전소준공식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처음으로 진행되었음.
 - 발전소의 오물처리능력은 하루에 1,400 톤에 달한다고 함. 발전소에서는 오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 의한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함.
 -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수지오물을 자동차에 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소연료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음.
-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인간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물재생이용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은 예상하고 있음.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고창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로동신문 2018.11.8.)

- 주북한 러시아연방대사관 성원들이 7일 천리마구역 조선로씨야친선 고창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일손을 도움.
 - 알렉산드로 마쎬고라 특명전권대사는 조선로동당의 농장이 앞으로도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로동신문 2018.11.8.)

-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심히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온도만을 높이지 않고, 각종 질병, 식량위기, 자연재해와 경제적 손실 등을 몰아오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 경우 2100년에 가서 지구의 땅 겉면온도가 거의 평균 8℃ 상승할 수 있고, 1750년 수준보다 땅에서는 7.9℃, 바다에서는 3.6℃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는 인간의 활동 중 화석연료를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 방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초래되고 있음.
- 세계도처에서 열파와 무더기비, 가물 등 자연재해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나고 있음.
 - 2017년에 세계적으로 710건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0년 간 평균건수보다 크게 늘어난 것임.
 -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37만 명에 달하였고, 그전 10년 동안보다 20% 늘어났음.
 - 세계기상기구가 밝힌 정보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손실액이 3,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함.
 - 평균기온이 2℃ 더 상승하게 되면 아프리카 사하라이남지역에서는 식량부족현상이 보편화 될 것이며 아시아에서는 강우량의 변화로 일부 지역들이 물에 잠기고 또 어떤 지역들에서는 수력자원이나 관개수, 먹는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함. 유엔아동기금은 2040년까지 약 6억 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36개 나라들에서 물 문제는 이미 위험계선에 이르고 있음.

월남대사관 성원들 미곡협동농장 참관(로동신문 2018.11.9.)

- 레바빙 주북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8일 사리원시 조선 베트남친선 미곡협동농장을 참관함.
 - 레바빙 특명전권대사는 이곳 농장이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음.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생태복원(로동신문 2018.11.11.)

- 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에 있는 생물들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으로 이루어진 생태학적인 단위들을 말함.
 -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중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 습지생태계, 연안생태계 등을 자연생태계로, 농업생태계와 도시생태계 등을 인공생태계로 나뉨.
 - 생태계의 기능을 보면 식량생산과 목재, 화학제품, 의약품원료의 제공, 물 순환 그리고 큰 물, 가물의 완화, 토양침식방지, 온난화방지와 기후조절, 폐기물 처리, 병해충대량발생의 억제, 유전자원의 저장 등이 있음.
 - 생태계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생물종들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할수록 안정하며 사람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환경을 마련하여 줌.

- 자연생태계의 보호에서 중요한 대상은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임. 이것은 산과 강이 많은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관련됨.
- 산림생태계의 보호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산림보호구들의 보호 관리를 잘하며 보호구들을 바로 정하고 보호구면적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함. 또한 중요한 문제는 파괴, 손상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것임.
- 전국각지의 산들에 적지적소의 원칙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나무심기를 적극 벌리고 사름물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을 가꾸어야 함.
 - 특히, 모든 산을 경제림도성사업을 진행하고 수원함양림과 분수령, 비탈면, 골짜기들의 보호림들을 잘 조성해야 함.
-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하천생태계의 보호와 생태복원에 힘을 쏟는 것임.
 - 산림조성과 하천생태계의 보호, 복원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하천상류부터 류역 관리를 개선하여야 함.
 - 하천상류류역의 산림덮임률을 최대한 높게 하면서 사방야계공사에서 생태공학방법을 비롯하여 앞선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물과 토양의 류실, 산사태 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함.
 - 이와 함께 습지생태계와 연안생태계 등의 보호와 생태복원을 다그치며 국조인 참매의 서식지보호와 흰두루미, 저어새, 황새, 사향노루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종들과 희귀한 동식물들의 생태환경보호와 복원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함.
 - 각지 근로자들 속에 앞선 과학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그들이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해야 함.

합리적인 비료리용방법(로동신문 2018.11.17.)

- 최근 어느 한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자료에 의하면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섞어 이용하면 따로 이용할 때보다 농작물의 성장에 보다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함.
 - 화학비료는 비료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면에 지속시간이 짧고 영양성분이 단일하여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섞어 이용하면 해당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음.
 - 또한 화학비료는 친 후 일부 영양성분들이 토양에 흡수되거나 굳어져 유효성이 낮아짐. 그러나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섞어 치면 화학비료의 성분이 허실되는 현상이 극복되어 영양성분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유기질비료는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네르기원천이며 화학비료는 미생물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영양성분임.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섞어 이용하면 미생물의 활력을 촉진

진하며 나아가서 유기질비료의 분해를 다그칠 수 있음. 토양미생물의 활동은 비타민과 비오틴 등을 산생시켜 토양의 영양성분함량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킴.

인디아대사관 성원들 갈천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로동신문 2018.11.21.)

- 주북한 인디아공화국 성원들이 항구구역 조선인디아친선 갈천협동농장에서 일손을 도움.
- 농장원들을 도와 벼탈곡을 했으며 정을 나누고 지원물자를 전달함.

2018년 세계위생시설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조선중앙통신 2018.11.22.)

- 2018년 세계위생시설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가 21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도시경영성, 국토환경보호성, 보건성, 인민대학습당 등 연관단위 일꾼들과 주북한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함.
- 토론회에서는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발언자들은 올해 세계위생시설의 날의 주제에 대해 소개하고 지금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 초보적인 위생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미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함. 또한, 생활오수, 공업폐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들은 강조함.
- 이어 《세계위생시설의 날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농촌에서의 위생시설건설기술을 보여주는 편집물을 시청함.

전국김치전시회 진행(로동신문 2018.11.30.)

- 전국김치전시회가 28일과 29일 려명거리의 요리축전장에서 진행되었음.
- 전시회는 성, 중앙기관 봉사부문, 인민봉사부문, 대외봉사부문, 평양시사회급양봉사부문, 각 도(직할시)급양봉사부문, 평양시녀맹부문으로 나뉘어 김치전시, 시범출연 등의 형식으로 진행함.
- 모란지도국, 평양호텔에서 전시한 보쌈김치, 백김치와 함경북도, 랑랑구역녀맹위원회에서 내놓은 갓김치, 양배추김치가 민족전통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가가 높아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음.
- 전시회에서는 우수하게 평가된 평양호텔, 양각도국제호텔, 옥류관, 청류관, 평안남도, 만경대구역녀맹위원회 등의 단위들과 요리사, 가정주부들에게 상장이 수여되고 해당 시상이 있었음.

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남북관계

남북, 10.4 공동 기념행사 개최

○ 남북이 10월 5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으며, 공동호소문을 채택하였음.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채택된 10.4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10.4 선언 기념 공동행사에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함.

- 채택한 호소문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빛나는 계승"이며 "지난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모두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세계가 보란 듯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공감신문. 2018.10.05. 남북, 10.4 공동 기념행사 개최...'평양공동선언' 이행 강조

남북, 평양서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 협의 개최

○ 10월 5일 평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협의가 열림.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북한과 고위급회담 대표단 협의를 진행함.

- 남북은 이날 협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때 합의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협력 강화와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이산가족 간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논의되었음.

news1. 2018.10.05. 남북, 평양서 사실상 고위급 회담...철도 현대화 사업 등 논의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 남북은 15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하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논의할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하는 등 7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함.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로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판 문 점

노컷뉴스, 2018.10.15.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의 개최 합의

○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함.

-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함.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함.

○ 남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함.

-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함.

-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로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

-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함.

-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함.

연합뉴스, 2018.10.15.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1월 말~12월 초 진행 합의(종합)

남북, 북한 양묘장 10개 현대화 추진 및 공동방제 진행 약속

○ 남측은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고, 2019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함. 또한, 2018년 안에 10개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남북은 10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진행하고,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함.

- 남북은 또한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시·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으며, 연내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남북은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임.

- 남북은 아울러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15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정리한 데 따라 열린 첫 회담으로,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첫 당국 회담이기도 함.

연합뉴스, 2018.10.22. 남북, 연내 북한 양묘장 10개 현대화 추진·공동방제도 진행키로(중함)

남북 보건회담 개최, 향후 정례화 및 감염병 정보교환에 합의

- 11월 7일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나 정례적으로 감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 협력을 협의하기로 함.

- 2019년 안에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호 정보 교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더불어 남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감염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해 실무적 문제를 문서로 교환해 협의하기로 함.

-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 남북이 보건의료회담을 연 것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직후인 2007년 12월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 만임.

- 이번 회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마련되었고 당시 남북 정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채택된 보건의료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음.

- 남과 북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 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를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앞으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문제들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news1. 2018.11.07. 11년 만에 재개 남북보건회담...정례화·감염병 정보교환 합의

통일부,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41억 8,700만 원 지원

○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41억 8,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통일부는 "11월 14~21일 서면 방식으로 교추협을 열고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힘.

- 의결된 안건은 ▲산림병해충 방제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 등임.
 - 산림병해충 방제 경비 14억 7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되며, 방제약제 구매와 수송비 등에 쓰임. 현장방문과 집행관리 등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별도임.
-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경비 9억 3,900만 원 및 남북공동 유해발굴 경비 7억 3,500만 원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지원됨.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사업비 11억 600만 원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되며, 만월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과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임.
- 이번 교추협에서는 문산~개성 고속도로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도 의결됨. 전체구간(22.2km) 중 남측구간(11.8km)을 우선 건설하고 추후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 구간(4.5km)도 완성한다는 계획임.

newsis. 2018.11.21. 정부, 北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41억8700만 원 지원

남북 철도공동조사,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서 예외 인정

○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북측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는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힘.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주중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2018.11.25. 남북 철도공동조사, 美 대북 독자제재도 면제받아

대한민국 정부, 북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 전달

○ 정부는 11월 29일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하였음.

- 남북 양측은 공동방제작업을 마치고 산림보전·보호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임. 이번 방북 계기에 이뤄지는 실무협약에서는 북측 양묘장 현대화와 관련해 현장방문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된다고 통일부는 전함.

연합뉴스, 2018.11.29. 北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전달...양묘장현대화 등 협의(종합)

북한 지역의 철도 조사 실시

○ 남북 양측은 11월 30일부터 18일 간에 걸쳐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남북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km 구간을 12월 5일까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km 구간은 12월 8~17일에 공동조사함.
-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을 주 5회씩 오가던 화물열차가 2008년 11월 28일 운행을 중단한 이후 10년 만임.
- 동해선 구간 조사를 마치면 다시 평양과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며 열차의 총 이동거리는 2,600km에 달할 것으로 보임.

○ 공동조사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 등 총 28명이 참여하며, 북측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됨.

-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대북 제재 문제로 계획보다 넉 달 이상 늦어짐.

연합뉴스, 2018.11.30. 남북, 오늘부터 18일간 北철도 공동조사

남북 정상의 주요 합의, 정부 대북 정책의 골격으로 반영 될 예정

○ 12월 3일, 정부는 2018~2022년에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 계획 계획을 공개함. 남북 정상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정부의 향후 5년 간 대북정책의 기본 골격이 됨.

- 기본계획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5개년 계획으로 명시됨. 남북 정상은 2018년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에 합의했으며, 남북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임.

○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 포함됐으며, 남북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

-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방향 진전 등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등 5대 원칙을 비롯한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가 밝혀 온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따름. 또한 4대 전략에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 합의 법 제화 및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포함됨.
-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줄어들고 비핵화 해결과 남북관계 증진 방안이 늘어났음.

○ 이번 기본계획의 7개 중점 추진과제 중 통일과 관련된 과제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라는 1개 항뿐이며 2차 기본계획에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등 10개 추진과제 중 절반이 통일과 관련이 있음.

-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한다는 목표가 이번에는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한층 구체화함.
-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2차 계획에 당국간 대화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정도가 담겼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수차례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을 거치면서 남북 대화 정례화,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함.

○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평화' 실현도 새 목표로 제시함.

-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은 직전 기본계획이지만 이미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와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에 관해 통일부는 "연초부터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 불가피하게 수립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2019년 시행계획은 서둘러서 2019년 초에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연합뉴스, 2018.12.03. 남북 정상 주요 합의, 5년간 정부 대북정책 골격된다(종합)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 종료 및 동해선 철도조사 시작

○ 경의선 북측 구간 철도 조사를 마친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12월 8일부터는 동해선 철도 현지 조사를 시작함.

- 우리측 동해선 조사팀은 28명으로 구성되며, 12월 17일까지 열흘 동안 금강산~두만강에 이르는 800km 구간을 북측 조사단과 함께 점검할 예정임.

- 남북조사단은 공강산에서 강원도 원산 안변역까지 구간은 버스로, 안변역부터는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에 쓰인 남북 연결 열차를 타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노컷뉴스. 2018.12.08. 남북, 오늘부터 경의선 이어 동해선 철도조사 시작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 1063억 원으로 책정

- 2019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이 1조 1,063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전년(9,624억 원) 대비 1,493억 원(15%) 증액된 예산임.

- 통일부는 2019년도 예산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하며, ▲인도적 문제해결 부문 5,724억 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 원 ▲사회문화교류 부문 205억 원 등을 책정함

- 증액된 부문을 보면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기반 무상사업 24.7% 증액(2,480억 → 3,093억) ▲경협기반 용자 사업 498.5% 증액(200억 → 1,197억) 편성됨.

- 또한, 이산가족교류 예산은 120억 원에서 2019년 395억 원(229.2%)으로 증액됨. 이외에도 ▲보건의료협력 6.2% 증액(682억 → 725억) ▲산림협력 279% 증액(300억 원 → 1,137억 원) ▲사회문화교류지원 58.9% 증액(129억 원 → 205억) 등이 이뤄짐.

데일리안. 2018.12.10. 2019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1조1063억 원... 전년비 15% 증액

남북산림협력단, 북한의 병해충 방제·양묘장 현대화 논의

- 남북산림협력을 위하여 북한을 찾은 남측현장방문단이 12월 13일에 귀국함. 방문단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에 관한 협력 사항을 북측과 교환함.

- 현장방문단은 122호 양묘장(황해북도 황주) 및 중앙 양묘장(평양)과 산림기자재공장(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간 실무협의를 진행함.

- 실무협의에서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이번 평양 방문은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0월22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당시 남북은 2018년 안에 북측 양묘장 10개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음.

아시아경제. 2018.12.14. 남북산림협력단 北서 복귀...병해충 방제·양묘장 현대화 논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종료 및 조사단 귀환

- 남북이 11월 달부터 진행한 경의선·동해선 구간 철도 공동조사 12월 17일 종료됨. 남북은 11월 30일 경의선 북측 구간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12월 5일 경의선 구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동조사단은 12월 8일부터 동해선 북측 구간 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였음.

- 경의선에서 동해선으로 이동하는 기간 이틀을 포함해 공동조사에 소요된 총 기간은 18일이며 경의선 북측 구간 400km와 동해선 구간 800km를 포함해 우리 측 열차가 북측 철도를 운행한 총거리는 2,600km에 달함.
- 남북은 공동조사 기간 동안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도 확정함. 착공식은 26일 북측 개성 인근 판문역에서 남북 각기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임.
- 남북은 대북제제가 완화될 때를 대비하여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철도 분과회담 등을 통해 남북 철도 협력의 본 공사를 위한 사전 논의도 진행할 예정임.

news1. 2018.12.17. 南北 철도 공동조사 오늘 종료...조사단 귀환

동해선 북측 구간 현장 점검을 위한 남한 실무진의 방북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앞두고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을 현장 점검하기 위하여 남측 실무자 10여명이 12월 21일에 방북함.

- 12월 23일까지 고성~원산 도로 100km 구간을 점검하고 귀환하며 12월 24일 다시 방북하여 경의선 개성지역 도로 4km 구간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할 예정임.

연합뉴스. 2018.12.21. 동해선 도로 북측구간 현장 점검 南실무진 방북(종합)

남북 철도 착공식 개최

○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함.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각각 100여 명이 참석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 그 이상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남북 간 교류와 왕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함.

news1. 2018.12.26. '남북 철도 착공식'...부산에서 유럽까지 철길 열리나

2 경제일반 및 농림축산업

◆ 경제일반

북한 사회과학원, 2017년도 북한의 GDP(307억 달러) 수치 주장

- 북한 사회과학원 평양경제연구소의 리기성이 2017년도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307억 달러(34조 7,831억 원)로 2016년의 296억 달러보다 3.7% 증가했다고 주장하였음.
 - 리기성은 2017년 북한의 무역적자도 15억 달러를 넘어서 2016년의 2억 3,000만 달러에서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함. 그는 또 북한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 대북 제재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북한 인구는 2016년 2,515만 9,000명에서 2017년 2,528만 명으로 늘었으며, 2017년 1인당 GDP는 1,214달러(약 138만 원)이었다고 밝힘.

newsis, 2018.10.14. "북 GDP, 지난해 307억 달러로 3.7% 성장"...北싱크탱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북한 노동자 및 수산물의 중국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북한 노동자와 북한산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함.
 - SCMP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훈춘시의 제약, 의류공장에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수시로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훈춘으로 새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대북 제재로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밀수입을 이용해 재래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고 지린성의 옌지와 훈춘의 수산물 거래업자들은 주로 북한 라진항을 통해 밀수입 물품들이 들어온다고 보도하였음.

TV CHOSUN, 2018.10.27. "대북 제재에도 北노동자·수산물 중국에 꾸준히 유입"

김도읍 국회의원, 탈북자의 사유별·유형별 현황 발표

-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사례가 단순히 체제 불만으로 탈북한 사례보다 6배 많은 것으로 집계됨. 지난 10년간 탈북자 1만 7,000여 명 가운데 50% 가량은 '하루에 한끼도 먹지 못하는 극심한 가난'이 싫어 탈북한 것으로 조사됨.
- 1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탈북자 사유·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탈북해

국내 입국한 사람은 1만 7,063명으로 집계됨. 2009년 2,914명에서 점차 줄어 2017년 1,127명으로 줄어들었음. 2018년 9월까지의 808명을 기록함.

- 1만 7,063명의 탈북 사유를 조사해보니 가장 많은 49.2%(8405명)는 '생활고'때문인 것으로 집계됨. 여기서 생활고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사진·북한 보육원 어린이들)"나 "굶어죽을 만큼의 극심한 기아 상태"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설명하였음.
- 생활고 탈북자 비율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 38.2%로 줄었다가 2015년 60%로 오른 뒤 5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경제, 2018.11.12, 탈북자 50% "하루 한끼도 못먹는 가난때문 탈북"...교육,종교 목적 탈북 급증

주북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에 따른 북러 간 무역액 감소 발표

-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으로 북러 간 무역이 70% 줄고,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수가 1년 동안 기존의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언론 스포트니크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매체 '제5채널'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3만 4,000명에 달했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현재 1만 1,000명으로 줄었다"고 밝힘.
 - 마체고라 대사는 또 북러 양국은 지난 2016년 중단된 '라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관된 운송 인프라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힘.
 -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싣고 이를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협력의 복합 물류 사업임.
 - 이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8일 대북 독자 제재의 하나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향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중단된 상태임.

newsis, 2018.11.17, 주북 러시아 대사 "러 대북 제재 이행...북러무역 70% 줄어"

통계청, 2017년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발표

- 통계청이 12월 19일 공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남한의 1인당 총소득은 3,363만 6,000원, 북한의 1인당 총소득은 146만 4,000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23배에 달했음. 2016년에는 남한의 1인당 총소득이 북한의 22배였는데 격차가 더 커졌음.
 - 1인당 총소득은 1990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5.7배 수준이었었는데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2017년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이 1,730조 4,614억 원으로 북한(36조 6,310억 원)의 47.2배였음.

- 2017년 북한의 인구는 2,501만 명으로 남한(5,145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음. 2017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 66.3세, 여성 73.1세로 남한보다 남성은 13.2세, 여성은 12.5세 짧았음.
- 2017년 국내총생산(GDP, 명목)은 남한 1,569조 416억 원, 북한 36조 3,818억 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43.1배였음. 2017년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3.5%로 추정됐으며 이는 1997년 -6.5%를 기록한 후 2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임.
 - 2017년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전년대비 940만 톤 감소한 2,166만 톤이었으나, 1999년에 2,120만 톤을 기록한 후 18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음.
 - 2017년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2만 2,000톤 감소한 470만 1,000톤이었고, 수산물 어획량은 12만 5,000톤이 감소한 88만 4,000톤이었음.
 - 철광석 생산량은 49만 2,000톤이 늘은 574만 1,000톤, 조강 생산량은 12만 8,000톤이 감소한 109만 톤, 시멘트 생산량은 683만 7,000톤으로 추산됐음.
 - 북한의 무역총액은 55억 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억 8,200만 달러가 감소함. 2010년 41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7년 만에 최소 수준임.

연합뉴스, 2018.12.19. 커지는 남북 경제격차...작년 1인 소득 남한이 북한의 23배

2018년 1~11월 북중 간 교역 현황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2017년의 1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12월 24일 기준,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8년 1월~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 9,175만 달러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88.6% 감소함. 동기간 북한의 대북 수입액은 20억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33% 줄었음.
 - 2018년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18억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북한의 고질적 외화난은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예상됨.
 - 한 대북 소식통은 "수산물, 철광석 등 값나가는 상품들의 대중 수출길이 재재로 막히면서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주요 업무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전함.

연합뉴스, 2018.12.24. 대북 제재 여파...북한 올해 수출 10분의 1로 급감

◆ 농림축산업

FAO, 북한 식량 상황의 악화 예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식량 상황이 2018년 남은 기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위기국가로 지목하였음.
 - FAO는 10월 3일 공개한 세계 식량 안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와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2018년 마지막 3개월 동안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함.
 - 보고서는 2017년에도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이 7.2% 감소했다면서, 2018년 식량 수확량 수준이 2017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예상함.
 - 북한은 2017년 여름 고온에 의한 가뭄과 폭우로 인한 홍수를 연이어 겪으며 농작물과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봤음.
 - 북한에서 10만 ha의 농경지가 8월 초 폭염으로 가뭄의 영향을 받았고, 홍수로 약 12만 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함. 이런 환경으로 가장 악영향을 받은 작물은 옥수수로 조사됨.
 - 또한, 황해남도과 황해북도에서 8월 말 6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이재민 1만 600명이 발생했고, 76명이 사망했다고 전함. 북한의 연평균 강우량의 절반 이상이 단 24시간 동안에 내려 피해가 더 컸다고 덧붙였다.
 - FAO는 12월까지 홍수 피해를 본 황해남도에 종자, 비료, 2륜 트랙터, 소형 농기구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달까지 가금류·돼지 등 소규모 가축, 의약품·건축자재 등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보고서는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2371호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함.
- 연합뉴스, 2018.10.04, FAO FAO "북한 식량 상황, 올해 남은 3개월간 더 나빠질 것"

UNDP, 북한의 산림면적이 25년 간 40% 감소하였다고 발표

- 북한의 전체 국토 가운데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25년 간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엔개발계획(UNDP)은 최근 공개한 '인간개발지수와 지표 : 2018 통계자료 개정판'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전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 41.8% 였다고 밝힘. 이는 25년 전인 1990년보다 38.7% 줄어든 것이라고 UNDP는 설명함.
- UNDP 보고서와 별도로 세계은행(WB)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1990년 북한의 국토

대비 산림 비율은 68.1%였는데, 이 비율과 비교해도 25년 사이 26.3%감소한 것임.

-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시작된 것으로 보임. 주민의 땀과 마련과 외화 획득을 위한 목재 수출, 식량난 해결을 위한 계단밭 개간 등 무분별한 벌목이 산림 면적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보고서는 또 2017년 태어난 북한 어린이의 기대수명이 71.9세(여자 75.3세, 남자 68.3세)로 전 세계 평균인 72.2세보다 0.3세 짧다고 분석함.

한국일보, 2018.10.09, 북한 산림면적 25년 간 40% 감소

미국 농무부, 북한의 2018년도 쌀 생산량을 160만 톤으로 예측

- 미국 농무부가 2018년도 북한의 쌀 생산량을 160만 톤(정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RS)는 최근 발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8년 쌀 생산량을 이같이 전망함.
 - 이런 전망치는 "2017년 155만 톤보다는 5만 톤 증가한 것이지만, 2016년의 167만 4,000톤보다는 7만여 톤 적은 수준"으로 평가됨. ERS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연말까지 수입할 쌀의 규모가 8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 한편, RFA는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가 북한의 쌀을 비롯한 곡물 부족을 지적했지만,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확대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 그러면서 "미정부의 해외 원조를 주관하는 부처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7년째 해외지원 예산항목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부터 2019년 9월까지인 2019 회계연도 국제개발처 예산안에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연합뉴스, 2018.10.24, 미국 농무부 "북한 올해 쌀 생산량 160만... 8만t 수입 예상"

세계영양보고서, 북한의 빈혈·발육부진 문제의 심각한 상황 발표

- '세계영양보고서'에서는 북한을 빈혈 및 발육부진이 심각한 나라로 명시하였음. 12월 1일 세계 주요 국가 정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8 세계영양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양실조에 따른 빈혈 및 발육부진 등 2가지 문제를 겪는 26개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발육 부진이 27.9%였음. 이는 2000년(51%)보다는 개선된 상황이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평균(12.2%)의 약 2배 수준임.
- 또한, 5세 미만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 역시 4%로 한국(1.2%), 동아시아 평균(2%)보다 높았고, 2015년 기준 북한 성인 여성의 32.5%는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보고서는 영양실조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018.12.01. 세계영양보고서 "北 빈혈·발육부진 문제 심각"

농촌진흥청, 북한의 2018년도 곡물 생산량을 전년 대비 16만 톤 감소한 455만 톤으로 발표

○ 2018년 북한에서 생산한 곡물이 2017년보다 약 16만 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농촌진흥청은 2018년 북한 지역의 기상과 병충해 발생 및 비료수급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의 위성영상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18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결과를 발표함.

- 농진청은 올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곡물은 총 455만 톤으로, 2017년 471만 톤에 비해 약 16만 톤(3.4%)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함.
 -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2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150만 톤, 감자류 54만 톤, 보리류 15만 톤, 콩류 및 기타 잡곡 16만 톤 등 순이었음.
- 쌀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만 톤(0.5%) 소폭 증가함. 7~8월에 높은 일사량과 수량 감소 요인인 평년을 상회하는 고온이 복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옥수수 생산량의 경우, 2017년 대비 17만 톤(10%)의 감소가 추정되는데 이는 개화기(7월)와 등숙기(8월) 고온과 가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감자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만 톤(2%)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는 봄철 재배 시 정적한 기후 조건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여름철 재배는 감자가 끓어지는 시기에 고온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두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사이 폭염으로 1년 전보다 1만 톤(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news1, 2018.12.18. 북한, 올해 곡물 455만 톤 생산...지난해보다 16만 톤 감소

◆ 기타

2017년도 EU에서 거주증을 발급 받은 북한인은 121명으로 파악

-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탯'(Eurostat)에 따르면, 2017년 EU에서 거주증을 처음 받은 북한인은 모두 121명으로 집계됨.
 - 최근 10년간 EU에서 첫 거주증을 받은 사람은 2008년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352명, 2010년 284명, 2011년 433명, 2012년 262명, 2013년 294명, 2014년 339명, 2015년 342명, 2016년 205명, 2017년 121명 등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2017년 첫 거주증 발급자 121명은 2016년(205명)보다는 41.0% 감소한 것이고, 2015년 (342명)에 비해선 64.6%, 지난 2008년(748명)에 비해선 83.8% 줄어든 것임.
- 2017년 체류 목적별 첫 거주증 발급자는 가족이 12명, 교육 57명, 취업 34명, 난민 및 망명신청 등 기타 사유 18명 등임.
- 취업 목적으로 EU에서 첫 거주증을 받은 북한인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음.
- 취업 목적으로 첫 거주증을 받은 북한인은 2011년 285명, 2014년 200명, 2015년 245명이었으나 2016년에 65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7년에 또다시 34명으로 전년도 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연합뉴스. 2018.10.27. 작년 EU서 첫 거주증 받은 북한인 121명... 10년래 가장 적어

2018년 11월 중순까지의 방북 인원(5,500명) 집계

- '월별 방북 승인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2018년도 방북 승인 인원이 5,050명인 것으로 집계됨.
- 통일부는 금강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규모 상봉대회가 열리는 등 방북인원이 더해져 11월 11일 현재까지 5,500명 이상 북측을 찾은 것으로 집계함. 2017년 방북 인원이 52명에 비해 10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 통일부의 남북 인원 왕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2008년 18만 6,000여명이 방북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북측을 방문함.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이후 개성공단 폐쇄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2017년 방북인원은 52명까지 줄었음.

매일경제. 2018.11.11. 올해 방북자 벌써 5,000명... 작년 100배

RFA, 최근의 북한 출신 재미 유학생 수(3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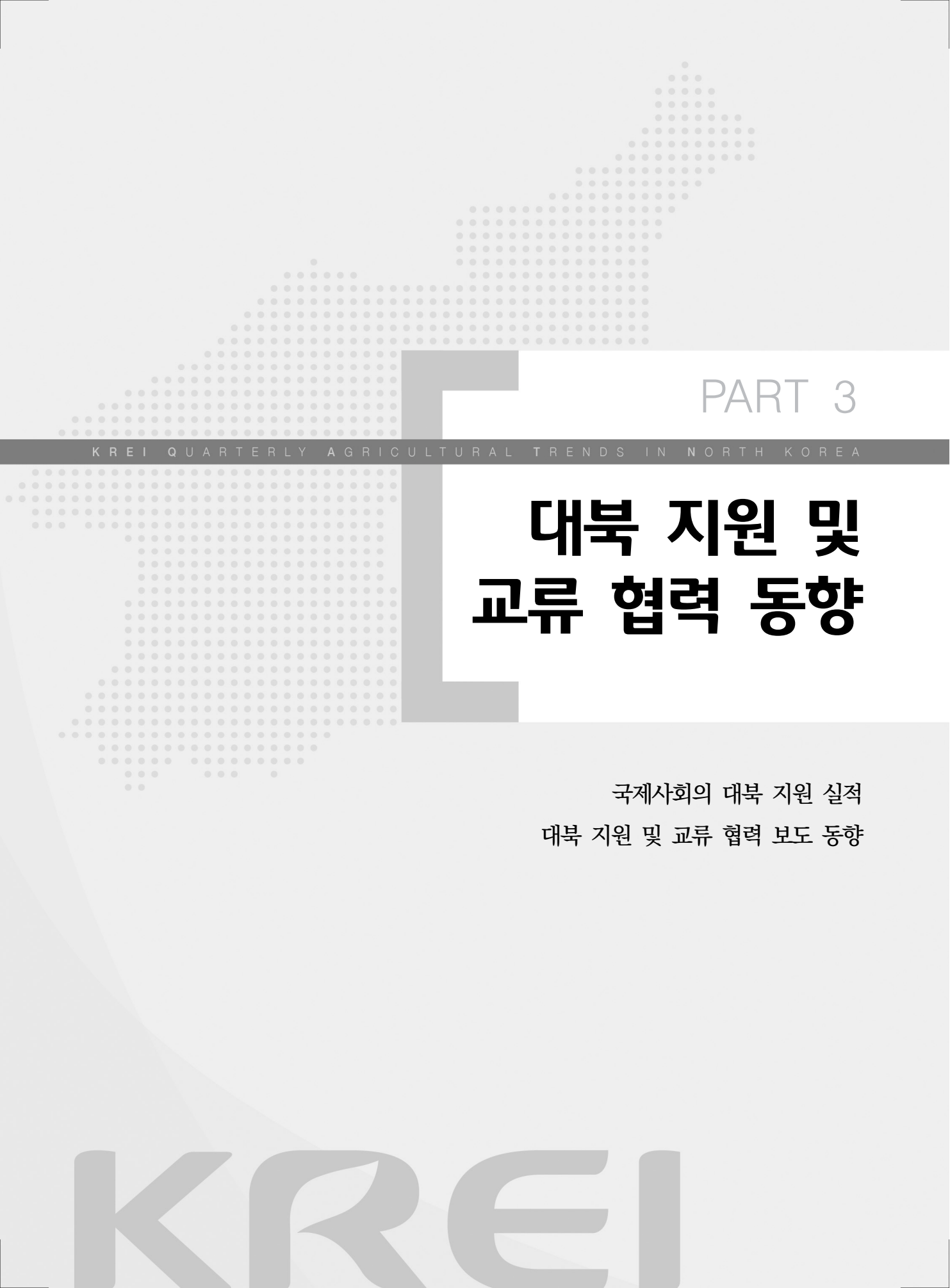
- 미국에서 유학 중인 북한 출신 학생의 수가 지난 2017~2018학년도에 단 3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였음.
- 11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 웹사이트에 따르면 IIE는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7~2018학년도에 재학한 북한 출신 미국 유학생이 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 등 3명이라고 밝힘.
- 바로 이전인 2016~2017학년도에는 학부생 7명, 비학위 과정(non-degree) 1명 등 총 8명이었는데 1년 사이 5명이 감소하였음.
- 북한 출신의 미국 유학생은 1975년 5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7년에는 266명까지 늘어났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20명을 넘지 못했다고 RFA는 설명함.

연합뉴스. 2018.11.17. RFA "北출신 재미 유학생 8명→3명으로 감소...역대 최소"

2018년도 탈북민 집계 결과

- 2018년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민은 1,042명으로 2017년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는 2018년 초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을 떠나 남으로 내려온 주민은 1,042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의 1,045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힘.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탈북 인원은 연 1,000명에서 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국정과제로 정해 탈북민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탈북민을 위한 협력사무소 2곳도 2019년 경기도 남 부와 경상남도에 설치할 계획임.

연합뉴스, 2018.12.18. 올해 탈북민 규모 1천42명... 통일부 "작년과 비슷"



PART 3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REI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8.12.

단위: 만 달러

구 분	프로젝트 목 표	모금액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³⁾	31,376	22,415	71.4	일본 9,568, 한국 5,381, 미국 2,923, 호주 699, EC 5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21, 캐나다 383, 스웨덴 343, 이탈리아 322, 노르웨이 236 등
7차 '01.1~'12	38,398	37,760	98.3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6,872, 농협 1,274, Korean Welfare Foundation 740, 이탈리아 708, 굿네이버스 6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617 등
8차 '02.1~'12	24,684	36,084	146.2	WFP 9,932, 한국 8,200, 미분류 6,589, 미국 6,349, EC 1,553, 독일 470, 호주 342, 스웨덴 274, 노르웨이 274, 캐나다 273 등
9차 '03.1~'12	22,937	18,670 (381)	81.4	미국 3,152, WFP 2,791, 한국 1,683, EC 1,631, Korean Church Federation 1,288,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93, 독일 491 등
10차 '04.1~'12	520,880	30,178	5.8	한국 11,774, 일본 4,670, EU 3,000, 미국 1,931, 스웨덴 1,154, 호주 824, 독일 800, 적십자사 662, 캐나다 532 등
11차 '05.1~'12	-	4,983	-	유럽연합 1,740, 독일 777, 스웨덴 546, 이집트 388, 노르웨이 352,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덴마크 RC 90 등

(계속)

구 분	프로젝트 목표액	모금액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2차 '06.1~12	-	5,054 (1,050)	-	한국 2,198(1,000), EU 1,103(50), 스웨덴 507, 노르웨이 403, 덴마크 157, 아일랜드 152, 독일 129, 이탈리아 106 등
13차 '07.1~12	-	11,698 (1,392)	-	사적자원 3,027(1,172), 한국 2,338,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110, 호주 647(62), 스웨덴 628(73), EU 537, 독일 523, 노르웨이 479 등
14차 '08.1~12	-	5,670	-	한국 1,532, 사우디아라비아 848, 독일 561,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28 등
15차 '09.1~12	-	6,13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한국 1,421, 스웨덴 1,406,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44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캐나다 244,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미국 60,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8,954 (16)	-	WFP 1,66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8, 스웨덴 900, 스위스 838, 호주 705, WHO 690, 노르웨이 266 등
18차 '12.1~12	-	11,779	-	WFP 5,00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92,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브라질 412, 노르웨이 351 등
19차 '13.1~12	-	6,280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10, 한국 1,208,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WFP 466, 러시아 300, 노르웨이 262, 독일 214, 호주 150 등
20차 '14.1~12	-	3,322	-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650, 스위스 504, 스웨덴 489, 캐나다 360, 호주 219, 독일 156, 프랑스 104 등
21차 '15.1~12	-	3,544	-	스위스 1,02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호주 229, 노르웨이 218, 캐나다 215, 독일 115 등
22차 '16.1~12 ⁴⁾	-	4,597 (21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05, 스위스 1,038, 독일 365, 스웨덴 318, 러시아 300, 호주 219(219), 캐나다 202, EuropeAid 173 등
23차 '17.1~12	-	5,538 (122)	-	WFP 2,243,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35, 스위스 502, 러시아 300, 스웨덴 167(110), 캐나다 149, 미국 100, 프랑스 49(11) 등
24차 '18.1~12	11,121.7	2,719 (233)	8.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000.4, 스위스 532.5, 스웨덴 465.2(200.3), 러시아 400, 캐나다 155.4, 노르웨이 56.9 등
총 계	-	288,607 (3,413)	-	

주: 1)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부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음. 본 표의 1995~1999년도 지원액은 구 FTS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2000~2016년도 지원액은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하였음. 2017년 이후 자료는 신규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었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되었음. 2018년도부터 FTS는 프로젝트 기반 소요액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제시하고 있음.

3) 모금액은 프로젝트 모금액 및 긴급구호 자금을 모두 포함함. 또한 실제 지원액과 이행 약속(Pledges, Commitment)액을 합산하였음(이행 약속액은 괄호로 별도 표기). 예를 들어, 500(100)이면 실제 대북 지원액은 400이며, 이행 약속액은 100임.

4) 2018년도 이후의 실적율은 프로젝트 목표액에서 모금된(실제 지원액+이행 약속액) 금액의 비율임.

5) 2016년도 지원액은 FTS의 구 홈페이지와 신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 후 누락 자료를 보완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 18, 2018)

표 2 2018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분야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
CW	스웨덴	WASH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FAO	스웨덴	식량안보 (농업포함)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999,269)	FAO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식량안보 (농업포함)	500,000	대두 및 채소 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 및 영양 상태 증진을 위한 긴급 구호
	소 계		1,998,903	
HI/HI	스웨덴	보건	333,132	북한의 급작 재난 위험 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
PUI	프랑스	식량안보 (농업포함)	(114,155)	미취학 계층(유치원 포함)에 대한 영양 다양성 강화와 이를 통한 장기 식량 안보 개선
TGH	프랑스	식량안보 (농업포함)	(114,155)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안보 증진
UNFPA	UNFPA	보건	243,834	긴급 지원
	노르웨이	보건	568,764	UNFPA 긴급 지원: 건강 및 노동력 복원을 위한 지원
	소 계		812,598	
UNICEF	UNICEF	보건	10,733	건강 분야
		WASH	197,215	WASH 분야
	스웨덴	보건	108,000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 - 보건
		영양	108,000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영양
		WASH	758,8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WASH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보건	1,524,971	영유아(5세 미만) 및 임산부, 취약 여성에 대한 구호
		영양	1,154,949	취약 아동(Severe Acute Malnutrition, SAM)에 대한 구호
		WASH	600,361	정수 및 생수 지원을 통한 대아동 건강 및 영양 상태 증진 지원
	캐나다	영양	388,500	아동 구호에 대한 인도적 활동 2018 - 건강
	프랑스	영양	150,966	어린이 급성 영양 결핍에 대한 치료
	소 계		5,002,591	
WFP	러시아	영양	4,000,000	영양 지원(HRP)
	리히텐슈타인	미분류	(102,669)	미분류
	스웨덴	영양	1,340,483	취약 인구에 대한 영양 지원(HRP)
	스위스	영양	5,324,814	WFP 다자-양자 할당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영양	2,745,000	영유아(5세 미만) 및 임산부, 취약 여성에 대한 필수 영양재 지원
	캐나다	영양	1,165,501	인도적 지원 할당(연례적) - WFP 국가 지원: Food
	프랑스	영양	154,321	어린이 급성 영양 결핍에 대한 치료
	소 계		14,832,788	
WHO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보건	3,478,487	MDR TB 약품, 긴급 약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합 계			27,191,350 (2,334,423)	

주: 1)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지원액을 의미함.

2) 지원 단체의 약자는 다음과 같음. CW: Concern Worldwide, HI/Hi: Handicap International / Humanity & Inclusion, PUI: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TGH: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Mar, 12, 2019)

표 3

2018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분 야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
WASH	CW	스웨덴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UNICEF	UNICEF	197,215	WASH 분야
		스웨덴	758,8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WASH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600,361	정수 및 생수 지원을 통한 대아동 건강 및 영양 상태 증진 지원
	소 계		1,556,472	
보건	HI/HI	스웨덴	333,132	북한의 급작 재난 위험 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
	UNFPA	UNFPA	243,834	긴급 지원
		노르웨이	568,764	UNFPA 긴급 지원: 건강 및 노동력 복원을 위한 지원
	UNICEF	UNICEF	10,733	건강 분야
		스웨덴	108,000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 - 보건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1,524,971	영유아(5세 미만) 및 임산부, 취약 여성에 대한 구호
	WHO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3,478,487	MDR TB 약품, 긴급 약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소 계		6,267,921	
식량안보 (농업포함)	FAO	스웨덴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스웨덴	(999,269)	FAO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500,000	대두 및 채소 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 및 영양 상태 증진을 위한 긴급 구호
	PUI	프랑스	(114,155)	미취학 계층(유치원 포함)에 대한 영양 다양성 강화와 이를 통한 장기 식량 안보 개선
	TGH	프랑스	(114,155)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안보 증진
	소 계		2,227,213	
영양	UNICEF	스웨덴	108,000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영양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1,154,949	취약 아동(Severe Acute Malnutrition, SAM))에 대한 구호
		캐나다	388,500	아동 구호에 대한 인도적 활동 2018 - 건강
		프랑스	150,966	어린이 급성 영양 결핍에 대한 치료
	WFP	러시아	4,000,000	영양 지원(HRP)
		스웨덴	1,340,483	취약 인구에 대한 영양 지원(HRP)
		스위스	5,324,814	WFP 다자-양자 할당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2,745,000	영유아(5세 미만) 및 임산부, 취약 여성에 대한 필수 영양재 지원
		캐나다	1,165,501	인도적 지원 할당(연례적) - WFP 국가 지원: Food
		프랑스	154,321	어린이 급성 영양 결핍에 대한 치료
	소 계		16,532,534	
미분류	WFP	리히텐슈타인	(102,669)	미분류
합 계			27,191,350 (2,334,423)	

주: 1)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지원액을 의미함.

2) 지원 단체의 약자는 다음과 같음. CW: Concern Worldwide, HI/HI: Handicap International / Humanity & Inclusion, PUI: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TGH: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Mar, 12, 2019)

표 4 2018년도 지원국/단체별 대북 지원 실적

지원국/단체	분야	지원창구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
UNFPA	보건	UNFPA	243,834	긴급 지원
UNICEF	WASH	UNICEF	197,215	WASH 분야
	보건	UNICEF	10,733	건강 분야
	소 계		207,948	
노르웨이	보건	UNFPA	568,764	UNFPA 긴급 지원: 건강 및 노동력 복원을 위한 지원
러시아	영양	WFP	4,000,000	영양 지원(HRP)
리히텐슈타인	미분류	WFP	(102,669)	미분류
스웨덴	WASH	CW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UNICEF	758,8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WASH
	보건	HI/HI	333,132	북한의 급작 재난 위험 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
		UNICEF	108,000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 - 보건
	식량안보 (농업포함)	FAO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999,269)	FAO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영양	UNICEF	108,000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영양
		WFP	1,340,483	취약 인구에 대한 영양 지원(HRP)
	소 계		4,651,955	
스위스	영양	WFP	5,324,814	WFP 다자-양자 할당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유엔중앙긴급 구호기금	WASH	UNICEF	600,361	정수 및 생수 지원을 통한 대아동 건강 및 영양 상태 증진 지원
	보건	UNICEF	1,524,971	영유아(5세 미만) 및 임산부, 취약 여성에 대한 구호
		WHO	3,478,487	MDR TB 약물, 긴급 약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식량안보 (농업포함)	FAO	500,000	대두 및 채소 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 및 영양 상태 증진을 위한 긴급 구호
	영양	UNICEF	1,154,949	취약 아동(Severe Acute Malnutrition, SAM)에 대한 구호
		WFP	2,745,000	영유아(5세 미만) 및 임산부, 취약 여성에 대한 필수 영양재 지원
	소 계		10,003,768	
캐나다	영양	UNICEF	388,500	아동 구호에 대한 인도적 활동 2018 - 건강
		WFP	1,165,501	인도적 지원 할당(연례적) - WFP 국가 지원: Food
	소 계		1,554,001	
프랑스	식량안보 (농업포함)	PUI	(114,155)	미취학 계층(유치원 포함)에 대한 영양 다양성 강화와 이를 통한 장기 식량 안보 개선
		TGH	(114,155)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안보 증진
	영양	UNICEF	150,966	어린이 급성 영양 결핍에 대한 치료
		WFP	154,321	어린이 급성 영양 결핍에 대한 치료
	소 계		533,597	
합 계			27,191,350 (2,334,423)	

주: 1)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지원액을 의미함.

2) 지원 단체의 약자는 다음과 같음. CW: Concern Worldwide, HI/HI: Handicap International / Humanity & Inclusion, PUI: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TGH: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Mar, 12, 2019)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WHO, 북한을 결핵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지정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는 2016~2020년 국제사회에서 결핵 문제가 심각한 30개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함.
-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포함된 이들 30개국에서 2017년도 전 세계 결핵 환자의 87%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북한 내 결핵 환자는 약 13만 1,000명, 약으로 치료가 잘되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5,200명으로 집계됨.
- 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결핵 유병률이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았음. 이는 2016년 북한 결핵 사망률인 43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1년 새 북한의 결핵 상황이 한층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결핵 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지원 정책이 부재한 국가로 분류됨.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해 북한에서 2018년도 결핵 예산으로 8,400만 달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 가운데 92%인 7,700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음.

연합뉴스, 2018.10.05, WHO "북한, 결핵문제 심각 30개국 중 하나...10만 명당 63명 사망"

UNICEF, 2018년 상반기까지 북한 아동 130만 명에게 영양 지원 실시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8년 상반기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아동 약 130만 명에게 영양 지원을 실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유엔아동기금은 최근 발표한 '북한 2018 상반기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생후 6개월~59개월의 어린이 약 130만 명의 건강상태를 검사,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와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를 치료하고 지원했다고 밝힘.

-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40%인 1,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어린이 약 283만 명이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함. 치료가 필요한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와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도 각각 6만 명, 12만 명에 달함.

○ 유엔아동기금은 2018년 상반기 어린이 130만 명에게 비타민A 보충제를, 45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미량 영양 가루를 지원함.

- 또 한 살 미만 어린이 약 16만 2,000명과 임산부 16만 3,000명에게는 예방 백신을, 설사 증세를 보인 9만 6,000명에게는 설사 치료를 위한 경구용 소금을 지원함. 138만 명은 필수 의약품이 제공함.

○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이 2018년 상반기 북한 189개 시·군에서 '지역 기반 영양실조 관리사업'을 진행했다고 소개함.

- 이 사업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점검해 사전에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약품과 식량을 지원해 치료하는 것으로, 2010년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

연합뉴스. 2018.10.09. 유엔아동기금 "올해 상반기 북한 아동 130만 명 영양 지원"

WFP,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발표

○ 북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힘. 에르베 베르우셀 WFP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구의 40% 가량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대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힘.

- 베르우셀 대변인은 "WFP는 매달 65만 명의 북한 여성 및 어린이에게 영양이 강화된 시리얼과 비스킷 등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대북 식량지원 자금이 충분치 않다고 강조함.

- 그는 "앞으로 5개월간 대북 식량지원 자금으로 약 1,520만 달러(약 179억 9,000만 원)가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37%만 모였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 어린이 19만 명의 영양실조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예외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 관련 정치·외교적 진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각국에 긴급 지원 협조를 요청함.

newsis. 2018.10.10.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 영양실조"

WFP, 2018년 연말까지의 대북 식량지원 위한 지원액 발표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2018년도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해

1,76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힘.

-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제임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10월 25일 "18년도 하반기를 한참 넘긴 10월 현재 시점에도 모금액은 목표액의 25%에 그쳤다"고 말함. 그는 이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북한의 취약계층 47만 5,996명에게 식량 99만 2,000톤을 지원했다"며 이는 지난 8월의 지원량보다 13%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밝힘.
- 또한, "WFP가 북한의 수도 평양이 아닌 식량과 영양 안보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지난 22일 '자금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세계식량계획에 5세 이하 아동, 임신·수유하는 여성, 결핵 환자들의 영양결핍 예방 활동으로 274만 5,000달러를 배정함.

연합뉴스. 2018.10.26. WFP "올해 대북 식량지원 위해 1천760만 달러 필요"

1995년 이후 EU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누계)는 1억 8,000만 달러로 집계

○ 유럽연합(EU)이 199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약 1억 8,000만 달러 상당을 지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10월 25일 공개한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서 "EU는 199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130여 개 대북 사업에 1억 3,570만 유로, 미화로 1억 7,82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 또 "인도적 지원자금은 식량 원조, 보건시설 개선, 주민들을 위한 식수 및 위생 시설 개선에 중점적으로 쓰였다"고 설명함. 이 자료에 따르면 EU는 2018년 8월 말 북한 황해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피해 주민들을 위해 미화로 약 11만 달러(1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핀란드 적십자사도 2016년 초부터 2017년 11월까지 추진한 재난대응 프로그램에 34만 달러(30만 유로)를 지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 농촌 지역 주민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7,000명이 혜택을 받았음.
- 자료는 "북한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7년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이 영향을 받아 북한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내 식량 부족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현황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북한은 가뭄, 홍수 및 태풍에 매우 취약하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2018.10.27. EU, 23년간 北에 1억8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대북 폭염피해 복구계획 연장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지난 8월 북한 폭염 피해 복구를 위해 시행했던 '비상조치계획'을 2개월 더 연장해 2019년 2월까지 진행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11월 16일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 폭염 비상조치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내 폭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8월 9일 시작했던 비상조치계획을 2019년 2월 9일까지 연장했다"며 그 이유는 "북한에 필요한 지원 물품의 도착과 배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지난 8월 2일 IFRC 평양사무소 측에 평안남도 와 함경남도 등 2개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비상조치계획을 시작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조치계획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호소 제공, 물 위생장비, 의 료 및 응급처치, 건설장비 등 21만 달러가 투입되었음.
 - 북한 주재 유엔기구와 IFRC, 조선적십자회와 북한 당국이 함께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 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에 대한 공동 조사도 시행했음. 국제적십자연맹은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에서 60명의 자원봉사자와 30명의 보건 종사자에게 폭염 교육을 했고, 폭염 예방 자료 800부를 인쇄해 지역 보건기관에 배포했음.
 - 또한 보고서는 비상계획조치로 폭염 피해를 본 북한 주민 1만 3,768명이 수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평안남도 신양군과 성천군에서 옥수수밭 206ha, 함경남 도 금야군에서 옥수수밭 62ha와 논 5ha가 피해를 보았다고 소개했음.

연합뉴스, 2018.11.17. 국제적십자연맹, 北폭염피해 복구 내년 2월까지 연장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2019년도 대북 지원 필요액 발표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2019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약 1억 1,100만 달러(한화 약 1,228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함.
 - 이는 2018년 유엔의 대북 지원 목표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약 1,000만 여명 가운데 600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액수임.
-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로 구호물자 공급처 리가 북한 관령 계약을 꺼리고, 대북 구호품 운송·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북한 내 연료비 가 상승해 대북 지원 이행에 드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 다만, 북한에서는 물·위생·청결 및 식량안보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뒤틀림. 또한, 북한의 2018년도 식량 부족분은 2017년 보다 11%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함.

매일경제, 2018.12.05.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내년 대북 지원에 1억1,100만 달러 필요"

FAO, 2018년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64만 톤으로 발표

○ 식량농업기구(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8년 4분기 보고서를 발간하며, 2018년도 식량 부족량이 64만 톤에 달하며,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0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하였다고 밝힘.

- 3년 전인 2015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36만 톤으로 전망된 것과 비교하면 2018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

- 보고서는 2018년 북한에서 봄철 작황과 가을철 쌀 수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 북한 가정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기계와 비료 등이 부족한 점을 꼽음.

- 보고서는 2018년 북한 당국이 곡물 39만 톤을 수입했고, 국제사회가 6만 6,000톤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8.12.12. FAO "北 올해 식량 부족량 64만"...지원 필요 40개국에 포함

스위스, 2019년도 대북 지원 예산(약 97억 원) 책정

○ 스위스가 2019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850만 스위스프랑(96억 8,000만 원)을 책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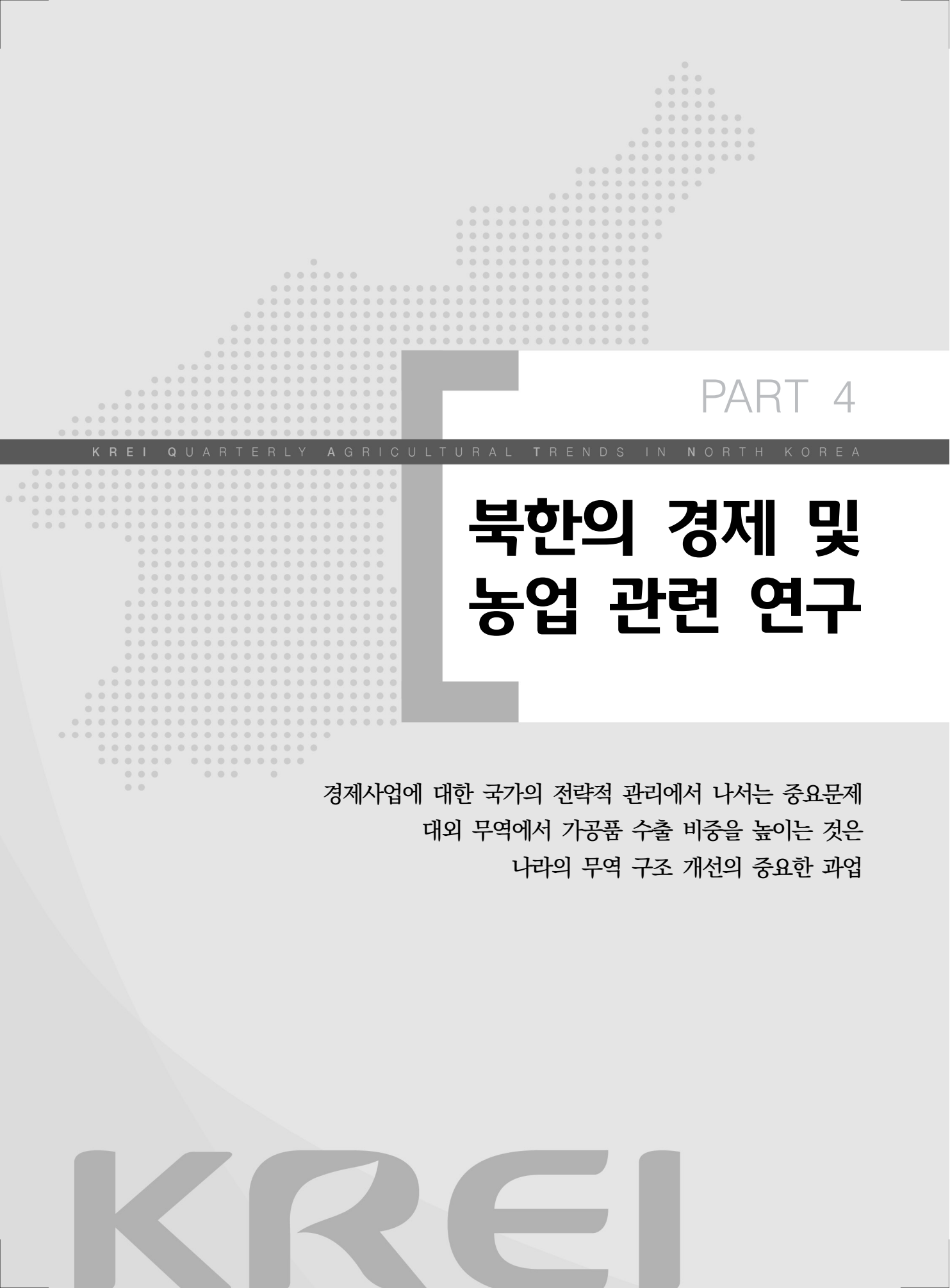
- 2019년도 스위스 대북 지원사업은 영양, 물·위생·청결, 재난위험경감 등을 중심으로 2018년도와 비슷하게 지원될 예정임.

○ 스위스는 2018년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760톤 규모의 탈지분유를 북한 어린이와 수유 여성 49만여 명에게 공급함.

- 물·위생·청결 분야에서는 정수시설 3곳을 새로 지어 북한 주민 1만 252명에게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한편 올바른 위생관념 교육도 진행했음. 이밖에도 토지 황폐화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계와 재난경감 사업'으로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함.

-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1995년부터 황해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연합뉴스, 2018.12.21. "스위스, 내년 대북 지원 예산 97억 원 책정"



PART 4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

KREI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나서는 중요문제¹⁾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한 정 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국가가 당 정책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한 국가경제 발전전략을 바로 세우고 그에 따라 경제작전과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며 나라의 경제를 전망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휘 기능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의 본질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먼 앞날의 높은 목표 달성에 지향시켜 나라의 경제를 전망적으로, 책략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관리 방식이라는데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높고 웅대한 국가경제 발전 목표를 내세우고 나라의 경제를 전망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중략)²⁾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사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 부문과 단위, 지표들을 틀어쥐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표들을 다 틀어쥐고 경제를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다. 여기서는 전략 기간에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 부문, 기동산업 부문, 주타격 방향 부문들과 그에 따르는 단위, 지표들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

1)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3호를 발췌하였음. 본문 내 굵은 글씨는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편집자가 표기한 것임.

2) 해당 부분은 소위 '사회주의 관리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부분으로 이를 생략함.

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다음으로 나라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마련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기업체들은 나라의 자원에 대한 이용권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기업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하여 경영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자원 조사를 앞세우며 토지,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송전시설, 정보통신시설, 관개시설과 같은 경제하부구조를 국가적으로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르는 책임과 확대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경영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들과 규정, 세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나라의 자원 조사사업과 경제하부구조구축 사업,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환경을 원만히 마련해줌으로써 기업체들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국가적 의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영 활동을 끊임없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다음으로 국가경제발전전략 집행 과정을 책략적으로 조종한다.

국가경제발전전략 집행 과정에는 당의 정책적 요구로부터 새로운 경제 과업이 나서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던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하여 일부 부문들의 경제 발전 속도와 인민경제의 중요 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조종을 하여야 할 문제가 나선다. 이런 조종을 국가가 제때에 책략적으로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가 전략적 이정표를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 수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 집행 과정에 대한 조종에서는 계획, 재정, 금융, 가격과 같은 경제적 공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조종대상의 요구에 맞는 경제적 공간을 바로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전략 기간에 내세운 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그 본질과 기능으로 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통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 전략을 바로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체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 전략에 따라 경영 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전반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활력있게 움직이며 발전해 나가게 된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여기에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 위에 부강번영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천하제일 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직접 맡아 진행 한다. 내각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체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에 따라 경영 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 나가도록 경제기술적 지도,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총체 방향과 목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 방도들이 다 밝혀져 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과 나라의 주권관적 조건,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워진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노선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기초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사회주의적 원칙과 경제 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내각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침으로 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세우며 그 실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과학적이며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 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만일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사업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떠난 주관과 독단을 허용하면 경제 강국 건설의 진군속도를 더디게 하며 나라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내각이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침으로 하여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방법이 경제 강국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켜 나가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할 수 있다.

내각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먼 앞날을 내다보면 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전망성있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적 관리의 기본 수단이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의 목표는 전략 기간에 나라의 경제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발전시키며 어떤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전략 기간에 나라의 경제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밝힌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매 단계에서 당과 국가가 제시하는 경제 과업에 맞게 경제장성의 높은 속도와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전략 기간에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도달하여야 할 수준 목표는 전략적인 경제 지표들로

규정한다. 그러한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 지표로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 반영하는 국내총생산액 또는 국민소득, 인민경제 발전 속도, 부문별 생산액, 중요 품종별 현물생산량 등이 될 수 있다.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는 인민들에게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높고 웅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의 부문별 과업은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전략 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그 수행 방도들을 내용으로 한다. 부문별 과업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발전전략의 총체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문들을 바로 설정하고 그 부문에서 국가적으로 힘을 집중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대책적 문제들을 예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문발전의 여러가지 전략적 방안들의 경제적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가장 큰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도는 전략 목표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도에는 경제기술적 요구와 경제적 효과성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국가경제발전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좌우된다.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 정책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생산자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며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할 수 있는 방도를 취하여야 한다.

내각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세운 다음 그것을 몇 단계로 나누어 집행할 것인가를 타산하여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이 대체로 5년, 10년, 20년 그 이상의 긴 기간을 예견하는 것만큼 단계별로 구분된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을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된다.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을 단계별로 나누어 집행하기 위한 계획인 것만큼 그 중심과업과 목표, 수행 방도들이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비하여 구체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수행하여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이 국가경제발전전략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고 확신성있게 할 수 있으며 모두가 전략 집행을 위한 투쟁에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떨쳐나서게 할 수 있다.

내각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며 끝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내각은 다음으로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경제전반을 급속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경

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전술적 방법이다.

인민경제는 공업, 농업, 기본건설, 철도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들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경제체제이다. 여기에서 매개 부문들은 서로 다른 사명을 지니며 그 지위도 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나서는 경제 과업에 따라 부문들이 노는 역할도 달라진다. 이로부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는 앞세워나가야 할 부문,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부문, 주타격 방향으로 되는 부문을 중심 고리로 선정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그런 부문들이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전반적 경제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은 경제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중요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 강국을 건설하여 북한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살게 하려는 것은 김정일의 염원이었다.

(중략)³⁾

내각은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에서 자립경제 강국,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과 같은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부문,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 우리 경제의 기둥으로 되어야 할 첨단산업 부문을 중심 고리로 정하고 이 부문들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나가야 인민경제전반이 일떠서고 활기있게 전진해나갈 수 있으며 농업과 경공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이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기둥 산업으로 되게 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내각은 해당 단계의 경제 발전과업과 부문들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심 고리로 되는 부문들을 옳게 선정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여야 한다.

내각은 다음으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며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주관 하에 풀어나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지도기관들과 일꾼들이 당과 국가의 요구에 맞게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김일성 및 김정일의 경제성장 성과를 주장하는 부분으로 이를 생략함.

내각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야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내각책임제는 내각이 당의 영도 밑에 나라의 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제도이다. 내각책임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가 지배하고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데 기초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강화하여야 내각이 당과 인민 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내각은 내각책임제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당과 인민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잘하여야 한다. 내각의 경제작전과 지휘는 어디 까지나 당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지향되어야 하며 면밀한 타산과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내각의 경제작전과 지휘에서는 당 정책과 국가적 요구에 어긋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며 주관주의적 사업방법이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내각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의 경제사업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내각은 성, 중앙경제지도기관들과 지방경제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경제 활동 정형과 경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내각은 아래 단위들의 경제사업에 대한 장악과 함께 통제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사업에서 내각은 아래 단위들이 당과 국가의 요구 실현을 선차시하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관본위주의적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내각중심제는 나라의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주관 하에 풀어나가는 제도이다.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내각책임제가 자기의 생활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내각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내각은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며 성, 중앙경제지도기관들과 지방경제기관들, 기업체들이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내각에 제기하고 내각의 주관 하에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개별적인 경제부문과 경제 단위들이 자기의 상대적 독자성과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자유주의적으로 사업하면 내각이 전반적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 할 수 없으며 나라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내각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내각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내각의 결정, 지시는 곧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경제적 조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아래 단위들은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내각은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내각의 결정, 지시를 결사 대하고 이구실 저구실을 대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현상에 대하여 엄하게 문제를 세우고 그런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내각 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에서 그 생활력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입증되었다.

내각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책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경제 강국 건설의 성과가 자신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운동의 앞장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경제관리, 전략적 관리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⁴⁾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장 순 남

현시기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자면 수출 무역에서 원료, 자원수출에 비하여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대외 무역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수출 무역에서 원료나 자원, 1차가공품에 비하여 2차, 3차가공품, 완제품의 수출량이 많을수록 수출 무역의 경제적 효과성은 더욱 높아진다. 원료, 자원에 비하여 2차, 3차가공품, 완제품에 투하되는 노동량이 더 많고 노동의 질도 더 높으며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그 가격도 원료, 자원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원료, 자원을 사다가 그것을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완제품을 국제 시장에서 실현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로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원료, 자원을 사다가 국내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가공 수출 무역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원료, 자원을 사다가 그것을 가공하여 원료, 자원 수입 가격의 최소 5배, 그 이상되는 가격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북한에 많은 마그네사이트는 그 품위가 높아서 국제 시장 수요가 대단히 높다. 이것을 원료로서 그대로 팔 것이 아니라 경소마그네샤, 탄산마그네샤, 내화벽돌 등과 같이 2차, 3차가공된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팔게 되면 몇배, 몇십배나 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현시기 북한에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생산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가공품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4)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3호

갖춘 수출용 가공품을 생산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생산 공정, 설비들을 중요한 전제로 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국경제 보호, 건강 및 환경보호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관세장벽과 함께 녹색장벽을 비롯한 비관세장벽을 쌓고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품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의 가공품들이 수출 무역에 대한 각종 장벽과 제재조치를 극복하고 국제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도록 하자면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가공품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제때에 개발, 생산하여야 하며 그것은 첨단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생산 공정, 생산설비에 의하여 담보된다.

북한에는 지도자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수출용 가공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적 토대와 생산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다.

우선 수출용 가공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다.

우리의 재능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산업분야로 되고 있는 정보기술산업과 나노기술산업, 생물기술산업분야 등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자랑스런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정보기술산업분야에서 극소수 나라들의 독점 기술이라고 떠들어대던 조작체계프로그램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 주체적인 프로그램산업, 정보산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나노기술분야와 생물공학분야, 기초과학부문과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 기술공학분야들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국가과학원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요 과학부문들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올려 세울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는 나라의 과학기술연구와 발전을 위한 중심기지로 성장 및 강화되었다.

여러 대학, 인민경제의 여러 단위들에 수많은 과학연구기지들이 꾸려져 나라의 과학 기술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지적제품류 통과 기술 봉사,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하고 있는 눈부신 과학기술적 성과와 강력한 과학연구기지들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가공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또한 수출용 가공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다.

최근에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우리 식의 많은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되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아크릴계 칠감생산 공정을 새로 꾸려놓은것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새로운 첨단 수준의 생산 공정을 꾸려놓거나 낡은 기계설비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전반적 생산 공정을 현대화, 정보화하

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으며 이것은 나라의 생산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이다.

세계적수준의 본보기, 표본공장들이 일떠서고 생산기업체들에서 현대화, 정보화가 급 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수출용 가공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높여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 수 있는 현실 조건으로 된다.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2013년에 연료나 광물의 세계적 수출량은 0.3% 증대된 반면에 가공품의 세계적 수출량은 2012년에 비하여 2%, 2013년에 3% 증대되었다. 이것은 가공품의 세계적 수출량의 증대 속도가 원료나 자원의 세계적 수출량에 비하여 10배나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가공품 수출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출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나라의 자원을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과 관련된다.

지난 시기 많은 나라들은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원료, 자원수출을 적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원료,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부터 지하자원을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국가의 전망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보고 원료, 자원수출을 제한하며 가공품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의 대외적영상과 권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무역관계는 나라들 사이의 대외경제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협조관계의 출발점으로 된다. 그러므로 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는 것은 해당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라의 대외적영상과 권위를 높여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출 무역에서 가공도가 높은 가공품, 완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과학기술 발전 수준이 높고 경제의 부문구조가 완비되어 있으며 생산 잠재력이 크고 무역에서 실리를 더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평가 된다. 이것은 가공품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해나갈 때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대외적 영상과 권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이익, 세계무역발전의 추세에 맞게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수출용 가공품을 적극 개발하여 그 품종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국제 시장에서 일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므로 한 상품의 수출에만 치우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국제 시장 수요가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 그것은 나라의 수출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수출상품의 품종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갈 때 국제 시장에서 상품 수요의 파동의 영향을 극복하고 수출 무역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용 가공품을 적극 개발하여 그 품종을 확대해 나가자면 우선 국제 시장 수요에 대한 타산을 잘하여야 한다.

국제 시장에서 상품 수요에 대한 타산은 국제 시장에 일정한 상품을 진출시킬 목적으로 해당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품종과 질, 수요량, 앞으로의 변화추이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수출 무역활동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생산보장할 수 있는 가공품이라고 하여도 시장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수출용 가공품을 개발생산한다면 상품 과잉과 수요의 끊임없는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국제 시장에서 실패를 면할 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어느 한 나라의 전기기구회사는 회사의 새 제품개발전략에 따라 에너지를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전등을 개발하여 시장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시장 수요는 높지 못했으며 결국 회사는 예측한 경제적 이익은 커녕 원금도 회수할 수 없었다. 이것은 수출용 가공품의 개발 및 생산은 목표시장의 상품 수요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시장의 수요 타산에서는 일정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와 그 분포 정형, 수입원천과 소득 수준,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체들의 생산 능력과 과학기술 발전 수준, 해당 나라의 경제 정책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확히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국제 시장의 수요 타산을 잘하자면 능력있는 전문가들과 현대적인 정보설비수단에 기초하여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수출용 가공품을 적극 개발하여 그 품종을 확대해 나가자면 또한 수출용 가공품의 대상을 바로 선택하여야 한다.

수출용 가공품의 대상을 바로 선택한다는 것은 당 정책과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생산수출할 수 있는 가공품의 품종을 옳게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가공품이라도 당 정책적 요구에 맞지 않고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출용 가공품의 품종을 늘려 나가자면 당 정책적 요구와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는 수출용 가공품의 대상으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잘 타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수출용 가공품의 대상으로는 우선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유기농산물과 축산물, 특산공예작물, 과일과 고급 수산물들의 2차, 3차 가공품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의 영도에 의하여 지금 나라의 농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농산물들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어 그 생산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북한에서 수산업 발전에 큰 힘을 넣은 결과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전국 도처에 현대적인 수산물가공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맛있는 물고기가공품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 굴지의 과수농장들이 일떠섰으며 나라의 주요 특산물의 하나인 인삼가공기지들이 더욱 현대화되어 인삼가공품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유기농산물과 축산물을 비롯한 특산공예작물, 과일과 고급수산물가공품의 수출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 조건으로 된다.

수출용 가공품의 대상으로는 또한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현대적 기술로 채굴하여 2차, 3차 가공한 가공품들이 될 수 있다.

북한에는 여러가지 천연자원들이 많다. 특히 경제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전략 적자원들이 무진장하다. 일부 전략적 자원들의 가공품은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하여 독점지표로 된다. 마그네사이트만 보더라도 매장량이나 그 품위에서 세계 제1위로서 그 것을 많이 채취하여 내화벽돌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2차, 3차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한 다면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이것은 마그네사이트 등과 같은 지하자원들을 현대적 기술로 채굴하여 2차, 3차 가공한 가공품들이 수출용 가공품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수출용 가공품의 대상으로는 CNC공작기계를 비롯한 첨단 수준의 기계가공품들이 될 수 있다.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대외시장 수요에 맞게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이 높은 상품이란 사용과정에 사람들의 건강과 주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성능과 형태, 색깔, 맛 등이 다른 상품에 비하여 우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지 않는 가공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필요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에 큰 관심을 돌리면서 위생안전성이 보장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상품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품질 관리 기준을 만들어놓고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찾아 구매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기업체들이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가공품 수출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높이자면 우선 생산기업체들에서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더욱 힘 있게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

수출 무역활동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직접적, 간접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생산기업체들이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것을 요구한다.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높이려면 수출용 가공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들을 비롯 한 모든 생산기업체들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마련된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 꾸러진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과학기술 수준과 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높이려면 또한 가공품 수출 무역에서 국제품질인증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품질인증제도는 공인된 제3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및 규격에 준하여 해당 상품이나 생산 공정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담보하여주는 국제적인 질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제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합리적인 품질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나라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살 때 품질 확인을 하거나 재검사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이 마음 놓고 상품을 구매, 소비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국제품질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987년에 제정한 품질 관리체계 ISO-9000과 1994년에 제정한 환경관리체계 ISO-14000계열, 2001년에 제정한 식품안전관리체계 ISO-22000계열에서 규정된 표준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다.

ISO-9000계열에 의한 품질인증제도는 해당 기업이 국제적으로 제정된 표준규격을 준수하면서 상품의 설계, 생산, 판매후 봉사 등을 진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 인증하여 주는 품질보증제도이라면 ISO-14000계열에 의한 품질인증제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한 표준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에 환경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ISO-22000계열은 식품생산단위에서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인 HACCP를 통합한 규격으로서 식품생산단위 뿐 아니라 해당 식품의 생산과 관계되는 연관 단위들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세울 데 대한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식품의 품질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국제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준수하는 것은 현시기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높여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만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를 받지 못하면 수입국의 수입규제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이행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된 나라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국제 품질인증제도를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국제품질인증제도를 세우고 국제적인 표준규격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수출용 가공품의 질을 높여 가공품 수출 무역을 확대하는데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국제품질인증체계를 세우려면 모든 생산기업체들에서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 규격들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 그 요구대로 원료, 자재의 구입과 투입, 상품의 생산과 포장 및 보관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품질인증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생산기업체들에서 국제적인 표준규격에 맞게 상품을 생산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도달한 생산기업체들과 상품들에 대하여서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주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나라의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으로 힘 있게 밀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수출은 국제 시장에서 상품판매경쟁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들은 수출 장려와 우대 조치를 통하여 자국기업체들의 상품판매경쟁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부터 자국의 기업체들이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출세금환부제를 실시하였다. 수출세금환부제는 기업체들의 대외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관련하여 징수하였던 세금을 다시 기업체들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나라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외수출기업체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553개 제품들의 세금환부률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⁵⁾

이것은 가공품 수출 비중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힘 있게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으로 밀어주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수출용가공품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러가지 우대조건들을 잘 보장해주는 것이다.

가공품 수출활동을 진행하는 생산기업체들은 국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생산조건을 수시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품 생산기지조성을 위한 사업과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동력, 연유, 노력의 보장 그리고 철도 및 해상수송수단과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의 이용 등에서 다른 단위들보다 더 낮은 값으로, 우선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으로 밀어주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수출품생산을 전문하는 기업체들을 비롯하여 가공품 수출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수출장려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수출장려금은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판로를 개척하며 수출을 늘일 목적으로 정부가 수출품 생산기업체들에 주는 특혜적인 자금이다. 국가에 의한 수출장려금은 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무역발전을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출용 가공품들과 생산기업체들에만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으로 밀어주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수출업무의 신속성과 간소화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5) 수출증치세와 관련된 국가는 중국으로 추정됨(KOTRA. 2008.12.30. 中, 553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생산된 가공품을 수출하려면 필요한 수속이 있게 된다. 상품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속 절차나 기간은 매개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상품수입에 비하여 수출에 대 하여서는 수속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공품 수출을 진행하는 생산기업체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출수속 절차와 그와 관련된 규정과 질서를 보다 간편하면서도 엄격히 세우고 수속기간도 단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무역지도기관들과 무역회사, 생산기업체 등 무역 관련 단위들 사이의 정보 및 자료교환, 계약, 결제, 각종 수속 등 무역업무의 전과정에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수단들을 적극 도입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대외 무역의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무역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가공품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무역 구조 개선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가공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가공품 수출, 무역 구조



PART 5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부 록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KREI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¹⁾²⁾

1.1. 곡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북한쌀 (시장가격)	4,275	4,798	6,508	5,360	4,967	5,150	6,067	5,475	5,093	5,057	5,411	5,418	4,823	5,779	6,109	5,247	5,170	4,982	4,765	4,912
북한쌀 (국정가격)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중국쌀	4,592	4,875	5,842	4,833	5,017	5,100	5,175	5,125	5,068	4,750	4,975	5,015	3,991	4,709	5,127	4,703	4,702	4,467	4,318	4,077
두부콩	0.61	0.65	0.70	0.59	0.61	0.62	0.61	0.59	0.62	0.57	0.60	0.62	0.50	0.58	0.63	0.58	0.58	0.55	0.53	0.48
통옥수수 (시장가격)	5,233	5,233	5,417	4,717	4,425	4,583	3,567	3,858	3,845	3,845	4,378	4,403	4,562	4,543	4,442	4,102	4,435	4,392	4,125	3,950
통옥수수 (국정가격)	0.70	0.70	0.65	0.58	0.54	0.56	0.42	0.44	0.47	0.46	0.53	0.55	0.57	0.56	0.54	0.51	0.54	0.54	0.50	0.47
감자	1,525	2,733	2,917	1,988	1,667	1,817	2,068	2,092	2,012	1,842	1,088	1,125	1,175	1,266	2,508	2,214	2,088	1,986	1,950	1,950
통옥수수 (시장가격)	0.20	0.37	0.35	0.24	0.20	0.22	0.24	0.24	0.25	0.22	0.13	0.14	0.15	0.16	0.31	0.27	0.26	0.24	0.24	0.23
통옥수수 (국정가격)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감자	967	833	1,193	1,177	1,100	983	960	858	890	483	883	952	883	685	1,077	963	977	933	867	863
고구마	0.13	0.11	0.14	0.14	0.13	0.12	0.11	0.10	0.11	0.06	0.11	0.12	0.11	0.08	0.13	0.12	0.12	0.11	0.11	0.10
	1,212			1,033	1,105	1,230	1,020	1,208												
고구마	0.16			0.13	0.13	0.15	0.12	0.14												

- 1) 본 표에 수록된 가격자료는 '테일리NK'가 제공하는 북한 내 6개 주요 시장의 분기별 가격 자료로서, 제공 품목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료품 및 농자재 등 25개 품목임.
- 2) 각 품목의 단위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kg 당 가격임. 상단의 숫자는 북한의 북한 원화 표시 가격, 하단의 숫자는 달러화 환산(현지시장 거래 가격 적용) 가격임.

1.2. 채소과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시과	5,017 0.67	4,550 0.61	4,225 0.51	4,258 0.52	4,492 0.55	4,658 0.57	3,550 0.42	3,983 0.46	2,893 0.36	1,492 0.18	1,538 0.19	1,477 0.18	1,578 0.20	1,486 0.18	1,187 0.14	1,147 0.14	1,137 0.14	1,193 0.15	1,143 0.14	1,037 0.12
배추	3,100 0.41	4,050 0.54	3,475 0.42	3,475 0.43	2,917 0.35	1,883 0.23	2,033 0.24	2,525 0.29	6,158 0.76	1,155 0.14	1,683 0.21	1,848 0.23	5,677 0.70	525 0.06	960 0.12	1,680 0.21	2,223 0.27	1,487 0.18	1,247 0.15	2,942 0.35
무	1,133 0.15	1,667 0.22	1,400 0.17	1,400 0.17	1,492 0.18	850 0.10	1,033 0.12	1,255 0.14	2,808 0.35	2,000 0.24	1,030 0.13	1,180 0.15	1,992 0.25	706 0.09	972 0.12	1,005 0.12	1,340 0.16	1,058 0.13	715 0.09	2,208 0.26
콩나물	1,500 0.20	1,083 0.14		1,517 0.19	1,500 0.18	1,410 0.17	1,195 0.14	1,500 0.17												
미늘									12,808 1.58	12,808 1.54	10,567 1.28	9,892 1.23	11,458 1.42	11,017 1.36	9,163 1.12	9,033 1.11	9,033 1.11	8,198 1.00	7,018 0.85	6,785 0.81
밭									7,457 0.92	6,492 0.78	5,983 0.73	5,766 0.72	5,963 0.74	5,997 0.74	4,379 0.53	4,002 0.49	4,262 0.52	4,310 0.53	4,378 0.53	4,145 0.49
참깨									14,700 1.81	15,317 1.85	14,533 1.76	13,667 1.70	14,567 1.81	11,883 1.46	7,150 0.87	10,517 1.30	10,675 1.31	11,540 1.41	11,367 1.38	10,067 1.19
양파 (북한산)									7,143 0.88	6,497 0.78	5,520 0.67	5,167 0.64	6,027 0.75	6,000 0.74	5,000 0.61	7,150 0.88	7,300 0.89	3,067 0.38	3,060 0.37	3,988 0.47
건고추									25,533 3.15	25,533 3.08	23,150 2.81	21,700 2.70	22,342 2.77	17,992 2.21	13,708 1.67	12,500 1.54	13,433 1.65	12,367 1.51	12,350 1.50	11,600 1.38
호박									없음	4,775 0.58	1,600 0.19	2,133 0.26	4,000 0.50	925 0.11	1,150 (중국산) 0.14	1,803 (중국산) 0.22	2,100 0.26	1,018 0.12	없음	없음

주: 사과와 단위는 1알(약 300g)임.

1.3. 입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반									12,317	12,317	10,867	10,550	12,917	13,100	10,833	10,067	10,283	10,283	5,183	5,625
									1.52	1.49	1.32	1.31	1.60	1.61	1.32	1.24	1.26	1.26	0.63	0.67
물									26,133	26,133	20,442	18,917	20,283	20,283	19,267	18,233	18,933	19,050	16,667	15,700
									3.22	3.15	2.48	2.35	2.52	2.50	2.35	2.25	2.32	2.33	2.03	1.86
건표고									37,078	37,078	33,767	32,567	33,467	31,933	22,500	27,083	27,240	23,500	21,317	20,033
									4.57	4.47	4.10	4.04	4.15	3.93	2.75	3.34	3.34	2.87	2.59	2.38

1.4. 축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돼지고기	16,917	13,667	16,083	16,083	13,500	11,567	14,750	10,717	12,917	9,842	11,767	12,850	12,550	13,113	17,533	14,517	13,783	13,393	13,670	15,950
	2.26	1.83	1.94	1.97	1.64	1.40	1.73	1.23	1.59	1.19	1.43	1.60	1.56	1.61	2.14	1.79	1.69	1.64	1.66	1.89
닭고기	11,676	12,950	14,933						31,717	31,717	26,942	25,950	24,833	25,300	23,300	22,833	23,667	21,900	20,500	19,883
	1.56	1.73	1.80						3.82	3.82	3.27	3.22	3.08	3.11	2.84	2.82	2.90	2.68	2.49	2.36
달걀	892	942	1,075	1,075	1,000	800	833	917	850	655	520	590	618	590	707	642	850	703	705	727
	0.12	0.13	0.13	0.13	0.12	0.10	0.10	0.11	0.10	0.08	0.06	0.07	0.08	0.07	0.09	0.08	0.10	0.09	0.09	0.09

주1: 달걀의 단위는 1알임.

1.5. 수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냉동명태	6,767 0.91	6,583 0.88	6,508 0.78	6,883 0.84	6,867 0.83	6,817 0.83	11,283 1.33	13,500 1.55	14,813 1.83	13,158 1.59	13,842 1.68	13,192 1.64	11,383 1.41	11,725 1.44	12,125 1.48	11,800 1.46	11,500 1.41	11,950 1.46	12,100 1.47	12,300 1.46
마른명태	5,683 0.76	5,500 0.74	5,400 0.65	6,567 0.81	6,458 0.78	5,925 0.72	6,492 0.76	6,683 0.77	6,424 0.79	5,467 0.78	5,402 0.66	5,540 0.69	6,380 0.79	7,452 0.92	7,392 0.90	6,875 0.85	6,025 0.74	6,167 0.75	6,092 0.74	6,205 0.74
마른낙지 (건오징어)	2,767 0.37	2,600 0.35	2,900 0.35	2,750 0.34	2,750 0.33	2,917 0.35	2,917 0.34	3,150 0.36	4,113 0.51		5,000 0.61	5,058 0.63	5,408 0.67	5,025 0.62	4,200 0.51	4,250 0.52	3,492 0.43	5,550 0.68	5,328 0.65	5,383 0.64
김	567 0.08	567 0.08	567 0.07	567 0.07	500 0.06	520 0.06	520 0.06	520 0.06	508 0.06	508 0.06	523 0.06	524 0.07	528 0.07	530 0.07	510 0.06	495 0.06	508 0.06	507 0.06	506 0.06	503 0.06
미역	3,833 0.51	4,017 0.54	3,817 0.46	3,817 0.47	4,067 0.49	3,317 0.40	3,450 0.41	3,267 0.37		3,550 0.43	2,988 0.36	3,158 0.39	3,687 0.46	3,350 0.41	3,078 0.38	3,030 0.37	3,383 0.41	4,733 0.58	4,355 0.53	4,250 0.50
소금	600 0.08	575 0.08	625 0.08	625 0.08	663 0.08	442 0.05	867 0.10	883 0.10	900 0.11	613 0.07	525 0.06	488 0.06	528 0.07	630 0.08	683 0.08	602 0.07	607 0.07	550 0.07	542 0.07	505 0.06

주1: 냉동명태, 마른명태의 단위는 1마리임.

주2: 마른낙지의 단위는 20마리임.

주3: 김의 단위는 20장임.

1.6. 가공식품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밀가루	5,283 0.71	5,333 0.71	5,413 0.65	5,408 0.66	5,392 0.65	5,533 0.67	5,083 0.60	5,002 0.57	5,000 0.62	5,008 0.60	5,040 0.61	5,153 0.64	4,900 0.61	4,983 0.61	5,212 0.64	5,025 0.62	4,942 0.61	3,800 0.46	3,933 0.48	3,492 0.41
밀가루 국수	5,183 0.69	5,417 0.72	5,500 0.66	5,500 0.67	5,500 0.67	5,567 0.68	5,033 0.59	4,558 0.52	4,350 0.54	4,567 0.55	4,575 0.56	4,592 0.57	4,450 0.55	4,994 0.61	5,238 0.64	4,940 0.61	4,875 0.60	4,017 0.49	3,900 0.47	3,467 0.41
두부	932 0.13	933 0.12	1,175 0.14	1,317 0.16	1,100 0.13	1,342 0.16	983 0.12	983 0.11	1,075 0.13	1,033 0.12	1,120 0.14	1,125 0.14	1,117 0.14	1,168 0.14	1,145 0.14	1,083 0.13	1,053 0.13	1,017 0.12	915 0.11	1,000 0.12
생선 통조림	6,088 0.81	6,158 0.82	6,208 0.75	5,658 0.69	5,658 0.69	5,867 0.71	5,867 0.69	5,867 0.67	5,133 0.63	5,133 0.62	8,861 1.08	8,545 1.06	8,483 1.05	8,583 1.06	8,496 1.04	8,274 1.02	8,107 0.99	12,083 1.48	11,267 1.37	12,225 1.45
콩기름 (북한산)	15,500 2.07	15,417 2.06	16,000 1.93	16,000 1.96	12,000 1.46	13,167 1.60	13,250 1.56	12,100 1.39	12,782 1.58	12,188 1.47	12,853 1.56	13,513 1.68	11,398 1.41	9,172 1.13	9,955 1.22	10,425 1.29	10,842 1.33	10,835 1.33	11,040 1.34	10,208 1.21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과일	5,833	5,783	5,783	5,783	5,783	5,783	5,333	5,317	5,277	5,277	5,317	5,192	5,067	5,065	4,738	4,815	4,667	5,408	6,058	5,285
통조림	0.78	0.77	0.70	0.71	0.70	0.70	0.63	0.61	0.65	0.64	0.65	0.64	0.63	0.63	0.58	0.59	0.57	0.66	0.74	0.63
시탕	7,450	7,183	7,217	6,350	6,400	6,042	5,683	4,695	5,182	5,630	5,058	5,192	6,287	6,037	6,240	6,102	6,132	5,117	4,800	4,803
	1.00	0.96	0.87	0.78	0.78	0.73	0.67	0.54	0.64	0.68	0.61	0.64	0.78	0.74	0.76	0.75	0.75	0.63	0.58	0.57
과자	6,500	6,233	6,475	6,475	6,475	6,083	5,558	5,942	6,448	6,092	5,443	5,457	6,355	6,458	6,600	6,383	6,433	5,658	5,350	
	0.87	0.83	0.78	0.79	0.79	0.74	0.65	0.68	0.79	0.73	0.66	0.68	0.79	0.79	0.82	0.79	0.79	0.69	0.65	
시탕가루	6,100	5,633	5,967	5,983	5,850	5,758	5,308	5,125	6,033	5,500	6,100	6,062	5,080	5,338	5,618	5,235	5,158	5,048	4,858	4,392
	0.82	0.75	0.72	0.73	0.71	0.70	0.62	0.59	0.74	0.66	0.74	0.75	0.63	0.66	0.69	0.65	0.63	0.62	0.59	0.52
간장	7,633	7,950	7,950	7,950	7,950	7,883	7,883	7,583	7,083	7,083	7,033	7,068	6,958	6,992	6,808	6,882	6,583	6,467	6,217	6,067
	1.02	1.06	0.96	0.98	0.96	0.96	0.93	0.87	0.87	0.85	0.85	0.88	0.86	0.86	0.83	0.85	0.81	0.79	0.76	0.72
박편장	2,517	2,267	2,267	2,267	2,267	2,167	2,167	2,167	2,125	2,417	1,837	1,812	1,802	1,833	1,835	1,918	1,510	1,725	1,577	1,420
	0.34	0.30	0.27	0.28	0.28	0.26	0.25	0.25	0.26	0.29	0.22	0.23	0.22	0.23	0.23	0.24	0.19	0.21	0.19	0.17
된장	5,233	5,233	5,233	4,783	4,783	4,783	10,550	10,467												
	0.70	0.70	0.63	0.59	0.58	0.58	1.24	1.20												
고추장	4,933	4,933	4,933	4,700	4,700	4,700	13,333	12,983	12,983	13,267	10,908	10,823	10,983	11,650	28,350	11,225	10,008	10,200	10,117	9,467
	0.66	0.66	0.59	0.58	0.57	0.57	1.57	1.49	1.60	1.60	1.32	1.34	1.36	1.43	3.46	1.39	1.23	1.25	1.23	1.12
맛내기	6,950	7,717	7,692	8,750	8,750	8,683	8,433	8,067	9,503	9,503	9,080	9,273	9,273	9,858	9,998	9,827	9,958	9,887	9,767	9,517
(조미료)	0.93	1.03	0.93	1.07	1.06	1.05	0.99	0.92	1.17	1.15	1.10	1.15	1.15	1.21	1.22	1.21	1.22	1.21	1.19	1.13
사카린	31,083	30,417	35,917	36,550	36,917	36,883	36,783	36,917												
	4.16	4.07	4.32	4.48	4.48	4.48	4.32	4.23												
커피	1,717	1,050	1,375	1,400	1,508	1,900			2,033	5,000	5,067	5,04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4,900
믹스	0.23	0.14	0.17	0.17	0.18	0.23			0.25	0.60	0.61	0.63	0.62	0.62	0.61	0.62	0.61	0.61	0.61	0.58
과일	3,683	2,917	2,700	2,750	2,750	2,750	2,750	2,633												
주스	0.49	0.39	0.33	0.34	0.33	0.33	0.32	0.30												
생수	900	900	900	933	933	883	633	592	533	500	533	537	542	502	1,270	1,083	1,417	1,233	1,250	1,283
(신맛생물)	0.12	0.12	0.11	0.11	0.11	0.11	0.07	0.07	0.07	0.06	0.06	0.07	0.07	0.06	0.16	0.13	0.17	0.15	0.15	0.15
소주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0.33	0.36	0.37	0.36	0.36	0.35	0.34												

주1: 농마국수의 단위는 1그릇임.

주2: 두부의 단위는 1모임.

주3: 생선 및 과일 통조림의 단위는 1개(150g, 400g)임.

주3: 맛나기의 단위는 450g임.

주4: 커피믹스의 단위는 유리통 1통 기준임.

주5: 과일주스와 생물의 단위는 1병(500ml)임.

주6: 소주의 단위는 1병(360ml)임.

1.7. 비료 및 농자재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비닐 박막									733 0.09	750 0.09	792 0.10	967 0.12	1,030 0.13	1,015 0.12	1,097 0.13	1,195 0.15	1,230 0.15	1,085 0.13	1,158 0.14	1,363 0.16
삽									9,110 1.12	9,568 1.15	15,010 1.82	15,300 1.90	15,500 1.94	15,200 1.87	14,667 1.79	12,583 1.55	12,833 1.57	12,833 1.57	11,483 1.40	10,667 1.27
호미									5,133 0.63	5,042 0.61	5,075 0.62	5,083 0.63	5,450 0.68	5,617 0.69	5,167 0.63	5,167 0.64	5,183 0.64	5,350 0.65	5,433 0.66	5,127 0.61
낫									6,193 0.76	5,647 0.68	5,692 0.69	5,455 0.68	5,467 0.68	5,550 0.68	5,217 0.64	5,008 0.62	5,008 0.61	5,125 0.63	5,258 0.64	5,025 0.60
수동 분무기									52,467 6.47	104,000 12.54	99,667 12.10	97,333 12.09	99,000 12.28	99,000 12.18	96,583 11.79	91,083 11.24	91,083 11.16	12,750 1.56	11,467 1.40	
질소비료									3,109 0.38	2,886 0.35	2,177 0.26	2,013 0.25	2,142 0.27	4,965 0.61	1,378 0.17	998 0.12	1,003 0.12	1,152 0.14	990 0.12	1,000 0.12

주1: 비닐박막의 단위는 1m임.

주2: 비료의 단위는 1kg임.

주3: 삽, 호미, 낫, 수동분무기의 단위는 1개임.

1.8. 환율

환율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2018_1	2018_2	2018_3	2018_4
1달러	7,475	7,475	8,305	8,150	8,240	8,240	8,505	8,730	8,113	8,292	8,240	8,052	8,061	8,126	8,190	8,103	8,162	8,177	8,217	8,426

E02-2018-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20권 제4호

찍 은 날	2019. 3.	펴낸날	2019. 3.
발 행 인	김 창 길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820-2000)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 02-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